

- ▶◀ [이달의 인물] 나는 배우다 진주제일여고 2학년 박소연
- ▶◀ [청소년 뉴스] 프듀 X' 투표 조작 논란에도
청소년들도 아베 규탄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불게임 허용
- ▶◀ [학교소식] 문산중학교 과학동아리 M.S.G.
진명여자중학교 내가 큐레이터가 되다!
경남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수학여행비 지원
경상사대부설고, 경남과학동아리발표대회 최우수상
- ▶◀ [맷칸년맷반] 진양고등학교 1학년7반편
- ▶◀ [맷칸년맷반-신청] 진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6반편
- ▶◀ [틴틴이슈-독자토론평] 디즈니 실사 애니메이션 흑인 인어공주 논란
- ▶◀ [필통번역실] 카밀라 카베요&션 멘데스 Señorita
- ▶◀ [19금 톡톡] 리얼돌 논란, 어떻게 볼까?
- ▶◀ [CLASS&CLASS] 선명여자고등학교 존예 2학년 5반편
- ▶◀ [틴틴이슈] 대체 아베는 왜 그럴까?
- ▶◀ [필통뮤직차트] 청소년이 좋아하는 트롯곡은?
- ▶◀ [동아리탐방] 명신고 댄스동아리, 딜레당트
- ▶◀ [반보드 Chart] 진주중앙고 1학년 6반 VS 진양고 2학년 9반
- ▶◀ [I'M FASHION PEOPLE] 김명주(중앙고1) & 오경민(선명여고2)
- ▶◀ [SNS 맛집 검증]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갈비를 가다
- ▶◀ [JOB을 잡아라] MBC 성우 표영재님을 만나다
- ▶◀ [씨네통통] 공포영화 변신 롯데씨네마 현장 투표
- ▶◀ [나의펫&우리티켓] 보스턴 테리어 앤크, 장은령(진양고2)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를 찾아서
- ▶◀ [취재수첩] 진주중앙고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시급하다
독서 없는 생기부 독서기록?
보건교사가 필요한 이유? 학교니까!
거스름돈, 백 원 돌려주세요!
이거 때문에 번기가 막힌다고?
키오스크, 무인결제 편하면 다야?
이럴 거면 학교는 왜 가는 거야?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8월호 문제



진주 하안메디컬 확장 개원

진주시 계동 옛 KT전화국 자리

하안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안메디컬 전문과목
- 하안피부과
- 하안성형외과
- 하안소아청소년과
- 하안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2019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나는 배우다. 진주제일여고 2학년 박소연

오늘도 배우고~ 연기와 함께하는 내일~ 내 삶의 일부가 될 배우의 길...

Q.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여고 2학년 연기를 사랑하는 배우 박소연입니다.

Q. 배우를 꿈꾸게 된 계기는?

A. 초등학교 때 영화 시사회에 초대받았어요. 그때 배우들이 관객들과 질의응답을 하는데 자신의 꿈을 자신감을 갖고 거침없이 대답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드라마 촬영현장을 보게 되었는데 배우들이 다른 인물이 되어 연기하는 모습이 흥미로웠고 나도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용기, 희망,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합니다. 또 감독님 미팅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오디션을 봐요.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에 가서 뮤지컬&연기연습을 합니다.

Q.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A. 엄마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새벽에 혼자 집을 빠져 오디션을 보러 가는 등 갈등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가 어떻게 연기를 하나?', '넌 안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성공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말보다 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기에만 집중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정적

Q. 최근 그런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들었어요.

A.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IT(국제통번역자격증) 1급을 따고 청소년 통역단 활동을 하며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은 일이 있어요.

Q. 연기하면서 어떤 역할을 맡아봤나요?

A.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주로 학생 역할을 주로 맡는데 아직 개봉하지는 않았지만 대만, 한국 합작 영화 '짱개'에서 불량학생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상업영화 '초미의 관심사', 드라마 '댄스넘버피프틴',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에서 학생 역, '응답하라 1988'에서 바둑기원생 역, 상업영화 '우상'에서 기자역 등을 맡았답니다.

Q. 앞으로 찍고 싶은 연기 장르는?

A. 개인적으로 의학 드라마를 찍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의학 드라마를 보면 흥미가 생겼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더욱더 섬세한 연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꼭 한 번쯤 의학 드라마를 찍고 싶습니다.

'너가 어떻게 연기를 하나?'. '넌 안 될 것 같다.'
주위의 부정적인 말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카메라보다 실물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A. 하하 아무래도 카메라가 더 살짝 보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위해 촬영 전날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도 하죠.

Q. 배우의 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A. 항상 아침 7시에 등교해서 친구들이 없을 때 교실에서 연기연습을 하고, 수요일은 연습하고 있는 대본을 분석해요. 또 방과 후에 카메라를 켜놓고 연기연습을 하는 저의 모습을 촬영해요. 그러곤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인 말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

Q. 학업과 병행하기 힘들지 않은지?

A.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아요. 처음 배우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이전의 나보다 뭐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연기를 시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공부에서도 연기적 요소를 많이 얻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역사드라마를 찍는데 역사를 모르면 안 되고 수학 선생님 역할을 맡았는데 수학에 손도 못 대면 진짜 연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Q. 가장 인상 깊었던 촬영은?

A. 영화 '환청'에 캐스팅되었는데 상대 배우와 대사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촬영현장에서 선배님들께 연기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또 재능tv '댄스넘버피프틴' 촬영하러 갔을 때는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함께 출연하고 실제 연기 선생님과 연기하게 되어서 신기하고 기뻐요.

Q. 연기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때가 있나요?

A. 친구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할 때 가장 뿌듯하죠. 그리고 제가 출연한 장면들을 모아서 봤을 때 점점 연기력이 늘어가는 게 보여서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엄마가 처음 그렇게 반대했는데 제가 꾸준히 연습하고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가끔 응원해 주실 때 가장 힘이 되고 기쁜 것 같아요.

**영화 '짱개' '우상' '환청' '초미의 관심사',
드라마 '댄스넘버피프틴' '발칙하게 고고' '응답하라 1988' 등에
출연했어요.**



Q. 어떤 때 가장 힘들었나요?

A. 중2, 고1 때 경제적인 문제와 슬럼프가 겹쳐서 연기를 쉬었어요. 같이 연기하는 친구들은 캐스팅이 되어서 촬영을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또 주변에서 안 될 줄 알았다는 식의 반응이 저를 더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Q. 롤모델 있나요?

A. 배우 지성이에요. 지성 배우님의 연기하는 미세한 눈빛과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갑자기 감정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연기하는 모습을 닮고 싶어요. 특히 드라마 '킬미힐미'에서 다중인격을 소화해 내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Q.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연기 비법이 있다면?

A. 이제 배우나가는 제가 무슨 비법이 있겠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카메라에 익숙해지도록 저의 연기하는 모습을 찍어서 계속 검토 해봐요. 또 연기할 때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평소에도 최대한 제 감정을 절제하고 그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며 생활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감정 기록이 심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답니다.

Q. 혹시 연기를 하면서 고마운 분 있나요?

A. 우선 김지인 대표님, 백우궁 대표님, 김명준 선생

**꼭 할리우드에 가보고 싶어요.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인스타그램 @act_soyeon0421**

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먼저 연락해 주셔서 연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토요일 날 연기연습을 하러 갈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세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A. 늘 맘속에 있습니다. 꼭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싶어요. 상상 이상의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잖아요. 또 전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꼭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영어 대본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나에게 연기란 무엇이죠?

A. 흥연이요. 태어날 때부터 내 어딘가에 연기라는 존재가 저와 이어진 채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Q. 다른 배우지망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내가 왜 배우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티비에 보이는 연예인들을 보고 막연하게 연기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게 될거니까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act_soyeon0421로 연락해도 됩니다.

[취재/ 민세진(진주제일여고2)기자]

프듀 X 투표 조작 논란에도... 결국 데뷔 강행한 엑스원

신인그룹의 가요계 출정식을 알리는 행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다. 이제 막 데뷔 음반을 내놓은 그룹이 8월27일 쇼케이스를 겸한 콘서트 '쇼콘'을 연 장소는 무려 2만명을 수용하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쇼콘 티켓은 지난 6일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석 매진됐었는데, 실제로 이날 공연장 주변은 쇼콘이 열리기 한참 전부터 소녀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에도 X1 데뷔를 강행하는 제작진과 이를 지지한다고 하는 소속사들 행태를 규탄한다"며 "수사 기관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투명한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날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X1의 데뷔 강행은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분위기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나 (멤버들이 각각 소속돼 있는) 기획사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 데뷔 시점을 연기했어야 했다"며 "데뷔 강행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기획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데뷔를 강행기로 결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심각한 부정이 확인된다면 X1의 데뷔는 향후 더 큰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려한 데뷔 무대를 가진 팀은 바로 엑스원(X1)이었다. X1은 지난 7월 종영한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 (이하 프듀 X)을 통해 결성된 보이그룹이다. 멤버 11명은 '국민 프로듀서'로 명명된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은 이날 데뷔 음반 '비상: 쿼터 리프'를 발표했다. 앨범엔 타이틀곡 '플래시'를 포함해 모두 7곡이 담겼다.

하지만 이들의 데뷔를 놓고 가요계 안팎의 시선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알려졌다시피 프듀 X는 투표 조작설에 휩싸여 있다. 제작진이 시청자 투표 데이터를 조작했다거나 투표 규모를 부풀렸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프로듀스 X 101' 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의혹이 계속 증폭하는 상황임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허용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유통된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달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유통하지 않았던 애플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되면서 국내 게임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8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최된 회의에서 애플과 맺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5일 개정된 내용으로 애플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



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국내 개발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앞서 게임위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아 유통했던 게임들은 애플 측에 신청할 경우 앱스토어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국내 유통중인 고평류(고스톱·포커류)게임도 애플이 성인인증 시스템을 정비하는 대로 빠르면 이번주 안에 앱스토어 등재가 유력한 상황이다.

중고생이 가장 많이 빌린 책...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지난 10년간 전국 각지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빌린 도서는 신경숙 소설 '엄마를 부탁해'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생은 김영주의 '짜장 찜뽕 탕수육'을 가장 많이 빌렸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844개 도서관 대출 자료를 분석해 6일 공개했다. 전국 도서관 데이터를 수집·제공하는 '도서관 정보나루' 대출 데이터 7억9000만여 건을 토대로 한 결과다.

지난 10년간 초등학교생이 가장 많이 빌린 도서는 '짜장 찜뽕 탕수육', 박완서 '자전거 도둑', 이영서 '책과 노니는 집' 순이었다. 초등학교생의 10년간 인기 대출 도서 상위 500위를 살펴본 결과, 시리즈로 구성된 그림책과 학습만화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했다. 중·고등학생은 지난 10년간 '엄마를 부탁해' 외에 조세희 '난장이가 소아울린 작은 공',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김려령 '완득이',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순으로 많이 빌렸다.



청소년들도 아베 규탄... 사과도 부족한데 경제보복

"경제전쟁 일으키는 아베 정부 꺼져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지소미아 폐기하라!"

광복절을 앞둔 주말인 10일, 옛날 교복을 차려입은 청소년들이 일본대사관 앞에 모였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희망) 등 청소년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중단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에 사과를 요구했다.

현장에 모인 40여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당시의 교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섰다. 당시 교복을 입고 거



리에서 투쟁했던 역사를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청소년들은 "일본은 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저지른 만행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비겁한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탄소년단, 미국 틴초이스어워즈 3년 연속 수상 쾌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상식 '틴 초이스 어워즈'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8월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틴 초이스 어워즈 2019'에서 4개 부문을 받았다. '초이스 컬래버레이션' '초이스 서머 투어' '초이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초이스 팬덤'을 거머쥐었다.



빅히트는 "올해 시상식 후보에 오른 뮤지션 가운데 최다 수상 기록"이라고 자랑했다. 특히 '초이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초이스 팬덤' 부문에서는 팬클럽 '아미'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올해 새롭게 수상한 '초이스 서머 투어' 부문은 방탄소년단이 5월부터 펼치고 있는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 월드 투어로 받았다. 아리아나 그란데, 빌리 아일리시, 선 멘데스 등을 제치고 뽑혔다. '초이스

컬래버레이션' 부문은 할시가 피처링에 참여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차지했다. 빌리 레이 사이러스가 피처링한 릴 나스 엑스의 '울드 타운 로드', 에드 시런과 저스틴 비버가 부른 '아이 돈트 케어' 등의 후보 가운데 선정됐다. 올해 21회를 맞이한 '틴 초이스 어워즈'는 미국 방송사 폭스가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해 음악, 영화, 방송, 스포츠 등 각 분야의 수상자를 결정한다.

혐오표현의 일상화... 성인·청소년 3명 중 2명이 경험

학교서 성평등과 인권교육 절실

성인·청소년 3명 중 2명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혐오 표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는 예쁘면 다 된다" "틀딱충, 맘충" 같은 혐오 표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사용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인 응답자(1200명)의 64.2%, 청소년 응답자(500명)의 68.3%가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과 5월 이 조사를 실시했다. 혐오 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 혹은 강화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다.

혐오 표현 대상은 성인의 경우 출신 지역(74.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58.2%)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은 여성(63.0%)과 성소수자(57.0%)에 대한 혐오 표현 경험률이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았다. 20

대(80.7%), 30대(71.1%), 40대(63.6%) 순이었다.

청소년 응답자의 82.9%는 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하거나 사용했다고 답했다. 학교(57.0%)와 친구(54.8%) 등 또래와 교류하면서 혐오 표현을 일상화하는 사례도 많았다.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로 '혐오 표현 내용에 동의하기 때문'(60.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들도 쓰니까'(57.5%), '재미나 농담'(53.9%) 순이었다. 비하 의도가 아닌 재미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발언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혐오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경남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수학여행비 지원

오는 2021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체육복이 무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수학여행 비용 역시 2021년부터 전 학생에게 지원된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 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월19일 밝혔다. 체육복의 경우 2020학년도에는 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고, 2021학년도에는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37억원, 2021년에는 63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체육복은 각급 학교에서 입학생 수를 파악해 조달을 통해 일괄 구매한 후 현물로 지급하게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만 지원했던 수



학여행비도 오는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올해 이와 관련해 당초 예산에 114억원이 편성됐고, 내년도에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교까지 확대되는 2021년에는 200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상사대부설고 경남과학동아리발표대회 최우수상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는 지난 8월14일(수)에 '제27회 경남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동아리발표대회'에서 개마무사(발표자 2학년 김나영, 오예진, 지도교사 노학기) 팀이 최우수상(1위)을 수상하였으며, 다가오는 9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에서 열리는 전국학생과학올림픽 과학동아리발표대회 부문 경상남도교육청 대표로 출전한다. 개마무사 팀은 '도시에서 누리는 자연의 선물-꿀벌의 소중함을 일깨우다'라는 주제로 학교 옥상에 3개의 벌통으로 도시양봉을 하면서 꿀벌을 관찰하고, 꿀을 생산하여 지역학생들에게 봉사활동으로 사



용하고 있다. 또한,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학생들에 홍보하였다.

경진고 하이패스 디자인 공모전 수상 쾌거

진주 경진고등학교는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주최된 '하이패스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해 금상 1명(3학년 하상진), 은상 3명, 동상 5명이 입상했다. 시상식은 본교 강당에서 이뤄졌으며, 우수작품들은 경진고 매직홀에서 작품전시회를 가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경진고 산업디자인과는 매년 대학, 각종 단체 주관 경진대회에서 최다 입상을 하고 있으며, 광고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를 교육해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진주고 방송인 래피 선배와의 스웍있는 만남

진주고등학교는 8월21일(수)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인 래피의 동문 기부특강을 진행했다. 방송인 래피(본명 김동호)는 본교 64회 동문 선배로, '세상은 됐고, 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어갔다. 방송인 래피는 래퍼겸 DJ이고, 음악저작권협회에 188곡을 등록한 작사, 작곡가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초 '글 쓰는 DJ'로 의 정체성을 표현할 만큼, 늘 책을 읽고, '세상은 됐고 나를 바꾼다', '래피의 사색', '동양철학 해설서' '내 인생의 주역'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날 래피는 성공에 대한 욕망과 좌절,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함, 가치 있는 삶과 진정한 나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통해, 학업과 관련한 인간관계 등에서 노력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사이드 같은 이야기로 호응을 얻었다.

경남체육고 제71회 Mr.korea 보디빌딩대회 고등부 우승

경남체육고등학교 보디빌딩부 이 신(2학년) 학생 선수가 지난 8월 11일(일) 대구광역시 대구보건대학교에서 열린 제71회 Mr.korea 보디빌딩대회 고등부(-70kg)에서 1위를 차지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신(2학년) 학생 선수는 보디빌딩 전국대회 중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Mr.korea 보디빌딩대회(-70kg)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학교의 명예를 빛냈다. 2년 연속 Mr.korea 보디빌딩대회(-70kg)에서 1



위를 차지한 이 신(2학년) 학생 선수는 앞으로 남은 전국체전에서도 전망을 밝게 했다.

진주중앙고 교육·학습권 보장 T.S.지킴 선언문 발표

진주중앙고등학교는 교권 침해로 인한 교육권 및 학습권 피해와 교육력 저하를 막기 위해 'T.S.지킴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8월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지리산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리더십 연수회를 개최, T.(Teachers) S.(Students)지킴 선언문을 확정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평소에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 10가지가 포함돼 있다. 진주중앙고 교사들과 학생들은 8월 29일 7교시에 학교 강당에서 교육활동 지킴(T.S. 지킴)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선언을 통해서 교사들은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삼현여고 진주푸드마켓 1인 1사랑 나눔데이



삼현여고와 '진주시푸드마켓·뱅크'는 지난 7월17일 '1인 1사랑 나눔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삼현여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이날 출근과 등굣길에 집에서 가져온 라면, 생활용품, 쌀 등의 생필품을 기부했다. 기부물품은 유통기한 검수 및 포장 단계를 거쳐 진주푸드마켓 이용자(450여 명)와 11개 초·중학교 결식가정(6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양고, 자율형 공립고 나누GO 오픈 주간 운영

진양고등학교는「자율형 공립고 나누GO 오픈 주간」을 지난 7월 30일 진양고등학교 1층 아름누리관에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생진로연계동아리 활용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율형공립고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클러스터별 자율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것으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자율형 공립고를 중심으로 개최하고 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주 동부클러스터 5개교와 웅남고등학교, 마산 내서여고 등 7개 고등학교에서 40여 명의 교원이 방문하여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한 학교 간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운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기계공고 기술 나누며 지역과 함께 성장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가 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게차·포크레인·용접·목공 등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주기계공고는 '이웃과 함께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이달까지 진행해 총 35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은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 시간에 진행된다. 올해 3년째 실시되는 이 사업은 2018년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DIY 가구교실'을 비롯한 총 4개 과정이 운영된다. 진주기계공고 교원들이 중심으로 수강생들을 가르친다. 이는 2019년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진주중앙고, 아바타 밴드로 언어폭력 예방 실천

진주중앙고등학교는 언어 폭력을 비롯한 학교 폭력 예방과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15일 '아바타(아름다운, 바른, 타인 존중) 언어 손목 밴드 착용식'을 거행했다. 손목 밴드에는 '욕설은 불행의 시작점, 고운말은 행복의 종착점, 욕설과 비난은 독이 되고 고운말은 덕이 된다, 예쁘다 네 말, 고맙다 네 맘, 나쁜 언어는 폭력의 시작, 사과 한마디는 화해의 문, 칭찬 한마디 우리 웃음의 길, 솔직한 척 무심하게 툴 던진 말' 등의 6개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는 진주중앙고등학교에서 지난 5월에 실시한 사랑의 언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표어 6개 작품이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아바타 언어 손목 밴드를 착용해 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욕설이나 속어 사용의 폐해를 인식하고 맑고 밝은 언어 사용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문산중학교 과학동아리 M.S.G.

‘미래식량, 식용곤충’ 프로젝트 활동으로 주목



문산중학교에는 학교를 대표하는 과학동아리 M.S.G.가 있다. 과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여러 분야의 활동들을 함께 탐구하는 동아리다. 수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 수요일 7교시에 고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분야를 나누어서 조별 프로젝트를 하거나, 모든 동아리의 부원들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M.S.G.는 2019년 의미있는 공통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했다. 동아리의 1년 계획을 세울 때 미래의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 처음에는 에너지와 미래식량 두 분야로 나뉘어 공통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학생들이 미래식량인 식용곤충을 이용한 프로젝트에 더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M.S.G.는 미래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에 관한 탐구를 계획하고 ‘미래식량, 식용곤충’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식용곤충은 미래의 식량자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풍부한 영양소와 무공해 식량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곤충으로 허가를 받은 식용곤충은 총 7종이며 대표적으로는 갈색거저리 유충인 ‘고소애’가 있다. M.S.G.는 교내에서 식용곤충과 요리를 접목시킨 요리대회를 실시하여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시식회를 열어 교내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맛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한 밀웜과 꽃병이 등 식용곤충을 직접 학교에서 사육해보는 활동은 동아리 부원들에게는 기억에 남을 특별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식용곤충을 찾아보기도 하고 동애등이나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식용 외에도 가축의 사료나 그 외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계획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진명여자중학교 내가 큐레이터가 되다!

PBL(프로젝트기반 학습) 수업 학생들에게 큰 호응



진명여자중학교 2학년 교실이 있는 3층 복도 전체가 순간, 박물관이 되었다. 지난 7월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 된 <지선샘과 함께 '별 별(別)교실' (교사 김지선)>은 진명여중의 1학기 역사 PBL(프로젝트기반 학습)수업의 결과물인 삼국시대 문화 박물관이 선보이게 된다. 각 교실 앞 복도에 자신이 수집하고 준비한 문화유물을 전시하고 자신의 모둠에서 관람객에게 학생들이 큐레이터가 되어 전시 유물에 대한 설명을 한다. 반별로 전시관을 탐방하고 각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까지 몰려들어 3층 복도가 북적~ 북적~ 소란스러우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지선샘과 함께 '별 별(別)교실'은 1학기 역사수업을 '삼국시대'의 역사가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PBL(프로젝트기반 학습)로 진행하였다. 주제는 “내가 큐레이터가 되



다!”였다. PBL에서는 교실의 주인이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그저 시끄럽게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학생들은 협업 능력, 자기관리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단편적인 지식 습득이나 암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많아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PBL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즐길수록 참여도는 높아지고 공부는 경쟁이 아닌 협력해서 배우는 것이 된다. 매 학기마다 PBL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김지선 교사는 공부는 점수로 환산된 성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성장시켜 줄 자질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주 혁신도시 중학교 과밀화 해소될까



진주 혁신도시내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내년부터는 문산중학교와 함께 신설대체 이전되는 대곡중학교에도 진학할 가능성이 커졌다. 진주교육지원청은 ‘2020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고시 개정안’을 지난 8월1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진주혁신도시 내 문산중학교와 내년 3월 1일자 신설대체 이전하는 대곡중학교를 통합해 새로운 학교군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군 신설지역의 3개 초등학교인 갈전초, 충무공초, 무지개초는 문산중학교로 문산중학교를 진학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갈전초, 충무공초, 무지개초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문산중학교와 대곡중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경진고 4차산업혁명 테마 직업경험

진주 경진고등학교는 지난 7월17일 진주 시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캠프를 실시했다. 올해 실시된 직업체험캠프는 3D모델링(항공기)체험, 드론 조립 및 조종, 3D 모델링 및 모형제작, 스킨아트, 컬러염색 과정으로 진행됐고, 총 75명의 중학생들이 참가해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중 뷰티와 스킨아트·컬러염색 과정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하기 위한 여름특집 귀신의집 분장체험과 큐빅과 클리터를 이용한 2019 트렌드 네일아트 체험

으로 직업캠프 중 가장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진주 봉원중 빈 교실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진주봉원중학교는 학교의 남는 교실을 학생들의 탈의실 등 휴식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뉴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진주봉원중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들이 집보다 많은 시간을 활동하고 머무는 공간이다”며 “하지만 학교의 공간 배치는 통제와 관리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교도소의 배치와 동일하여 공간 혁신이 필요했다”고 프로젝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진주봉원중학교는 도심의 외곽에 위치해 최고 35학급에서 현재 9학급으로 학급 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학교에 남는 교실은 많지만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관리가 어렵다”며 “창의성과 확산적 사고를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의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3학년 4명의 학생이 여름방학 내내 구슬땀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진주고, 유럽문화 체험활동 진행!



진주고등학교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선발된 진주고 1학년 10명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유럽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온 진주고등학교의 유럽문화 체험활동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4개국을

체험하는 순수 배낭체험으로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1차 서류심사(배낭여행 계획서)와 2차 면접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참가 대상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자인 김상수장학회는 진주고 51회 졸업생으로 서울에서 투자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상수 동문이 모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후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설립되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20여여원을 지원하여 약 160여명의 학생들이 유럽문화 체험활동에 참가하였다. 올해에도 여행경비와 참가자들이 유럽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기 위한 도서구입비를 포함하여 총 1억원의 경비를 전액 지원하였다.

진주동명고 독도·울릉도 탐방



“독도야, 우리가 영원히 지켜줄게.” 경남 진주동명고등학교 독도수호동아리가 3년 연속 독도와 울릉도를 찾아 현지에서 나라사랑 탐방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독도수호동아리는 지난 7월13일부터 15일까지 독도와 울릉도에서 현지 탐방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현지 방문 전 독도의용수비대 강연을 듣고 현지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과 독도박물관 등을 찾았다. 이 동아리는 2013년부터 독도 사랑 운동을 하려고 지리과목 담당인 조기만 교사와 1~2학년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당초 독도동아리라는 명칭으로 출발했으나, 올해부터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려고 ‘독도수호동아리’로 이름을 바꿨다. 2017년 탐방 첫해에

는 학생 17명이 참가하다가 지난해엔 18명, 올해는 학생만 25명을 포함해 인솔 교사 등 30명으로 늘었다.

진주중앙중 학생과 아버지가 함께하는 ‘동상동몽’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한려해상 생태 탐방원에서 진주중앙중학교 학생과 학생 아버지 45명을 대상으로 ‘동상동몽(同相同夢)’ 부자(父子) 캠프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생애주기별 교육의 일환으로 자칫 결고려워지기 쉬운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사춘기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스포츠한 희망 설계’, ‘행복 소통 일쓰구 전래놀이’, ‘오리엔티어링’ 등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경남과학고 대한민국발명전시회 휩쓸다

경남 과학고등학교는 지난 7월25일 KINTEX 홀에서 진행된 제32회 대한민국 발명전시회에서 총 16편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32회 대한민국발명전시회는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발명품을 발굴해 시상하는, 학생들의 발명욕을 고취 및 창의력 계발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는 발명대회이다. 3학년 김연준 학생(지도교사 정대준)은 ‘이 안락동의 가치를 안락’을 발명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1학년 조은모 학생(지도교사 김윤동)은 ‘실수 없는 수정테이프’ 등 총 1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경남과학고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장관상 이상의 최다 수상실적을 내게 되었다.



[반보드 Chart] 남,여학교 반 미니설문조사

Ban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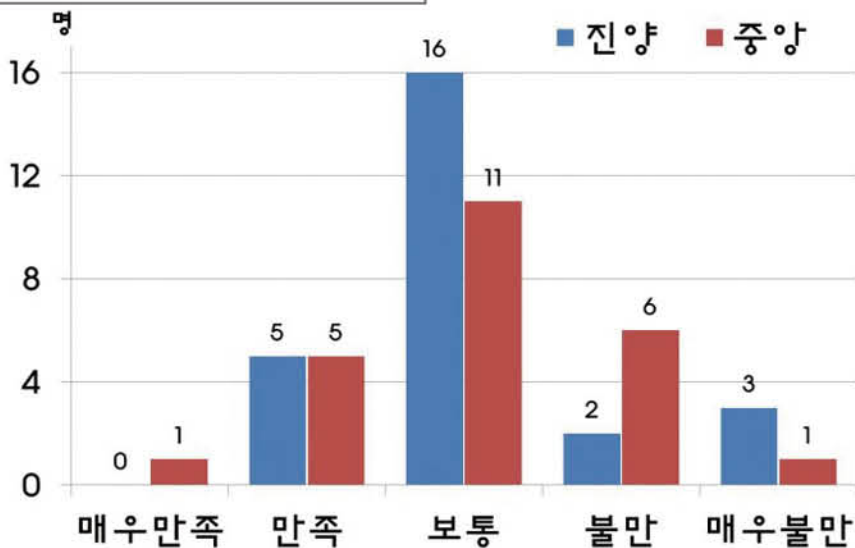
진주중앙고 1학년 6반 vs 진양고 2학년 9반

〈필통 반보드Chart〉는 매월 남녀 고등학교 각 1개반을 선택하여 청소년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정확한 조사나 통계는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남녀 학생들의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코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호에

는 동명고등학교 2학년 6반 21명의 남학생들과 선명여고 2학년 2반 20명 여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솔직한 답변, 남녀의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 등에 집중하면 더욱 재밌게 이번 달 반보드 차트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교복만족도]



두 학교 모두 교복에 만족하는 학생들과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비슷하게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비교

적 많았다. 교복은 개인의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에서 사복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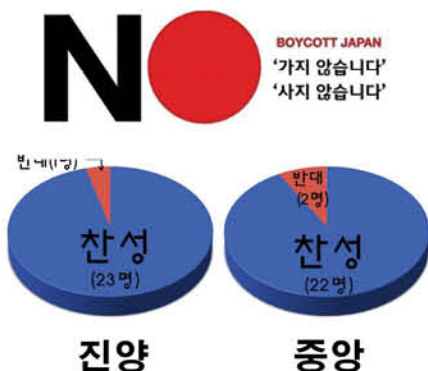
학교에서 사복착용은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았다. 반대의견은 진양고 1명, 중앙고 2명에 불과했다. 이미 중앙고등학교와 진양고등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사복을 착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학교의 제재는 사

실상 거의 없다. 교칙에는 두 학교 모두 분명 착용을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착용을 찬성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사복 착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복 착용은 교칙에 공식적으로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교칙에는 없지만 학생들이 강요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 외 체육복착용을 금지하는 것, 컴퓨터 사용, 다른 반에 출입하는 것, 교내 애정행각 금지, 고데기 사용 등이 있는데요. 물론 학교에서 통제를 하고 제재를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어느정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수미-중앙고 1학년)

[일본 불매운동을 알고 있나요?]



요즘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을 조사 한 결과 일본 불매운동을 모르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이를 보아 일본불매운동이 어른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불매운동 참여유무를 조사한 결과 진양고등학교(2학년 9반)는 2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중앙고등학교(1학년 6반)는 24명 중 6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일본의 사죄 없는 일방적인 침략행위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명을 남겼고 우리는 여전히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와 같은 산증인들이 있음에도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이 우리 자국민을 만주 등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강제징용을 시킨 전점기업에 배상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이에 반발하여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 수입에 제동을 걸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대통령도 시민의 손으로 비싼 국민이 무엇을 못하겠나, 시민들은 이런 일본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여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불매운동은 정당한 시민참여이며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지속될 시 양국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다. 일본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양국 정상은 서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화의 물꼬를 틀어야 할 것이다." (신기원-중앙고 1학년)

양자택일, 나의 선택은?

[아이스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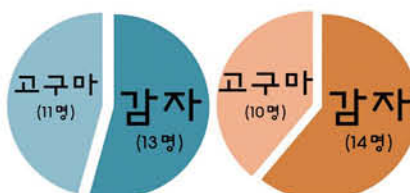
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다. 그중에서 학생들에게 콘으로 된 아이스크림과 바로 된 아이스크림 중 어느 것이 인기가 더 많은지 알아보았다. 콘으로 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학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가격 때문인지 두 학교 모두 예상외로 바로 된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는 학생이 많았다.

[라면의 국물 유무]



라면은 학생들의 한 끼가 되기도 하고 야식이 되기도 한다. 요즘 국물이 없는 라면이 많이 출시되면서 국물이 있는 라면과 국물이 없는 라면 중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라면을 알아보았다. 진양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 모두 국물이 있는 라면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전통적인 맛을 추구하는 두 학교^^

[좋아하는 구황작물]



의외로 감자와 고구마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다. 진양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 모두 감자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감자를 더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감자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들이 고구마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들 보다 더 맛있다는 이유였다. 감자와 고구마는 요즘 우리가 많이 먹는 인스턴트 보다 건강에 더 좋으니 간식으로 강력 추천한다.

[주로 하는 SNS]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SNS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SNS에는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페이스북은 '오늘하루', '페이스북 메신저', '타임라인'을 이용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은 '스토리', '다이렉트 메신저', '피드'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진양고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중앙고등학교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선호하는 헤어 스타일]



유행과 개성이 뽐뽐하는 요즘 청소년들은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패션에 매우 민감하다. 학교에서 파마를 한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상했던 것과 같이 진양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 모두 펌을 선호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

[더 좋아하는 찌개]



한국인 하면 된장과 김치가 밥상에서 빠질 수 없다. 주위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둘 중 뭐가 더 맛있냐고 묻는다면 반응은 항상 반반이다. 진양고등학교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중앙고등학교에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애인의 남,여사친]



요즘은 중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연애를 하면서 남(여)자친구의 남(여)사친(남자인 친구, 여자인 친구)을 이해할 수 있다는 질문에 두 학교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학생이 더 많이 나왔다. 그 이유는 학교를 다니면 같은 반인 남(여)사친이랑 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학생 연인 분들 행복한 연애하세요.^^

[틴틴이슈] 일본 경제침략의 이해

대체 아베는 왜 그럴까?



#1. 자꾸자꾸 국가의 채무만 늘어간다

일본 이야기를 해 보자. 한반도의 전쟁을 통해서 전후복구를 잘 마쳐서 세계 2대 경제 강국까지는 해 보았는데, 어느 날 미국의 머니게임으로 오랜 동안 경제가 말이 아니다. 환율이 반토막 나서 수출도 예전 같지 않고 잃어버린 10년이 지난 후 국민들도 예전 같지 않아 노인만 여기저기 웅크리고 앉아 연금을 달라고 한다. 어떻게 경제를 살려 보려하니 저금리정책으로 금리를 한 푼도 줄 수 없어 노인들은 더욱 힘들다. 자꾸자꾸 국가의 채무만 늘어간다.



지난 70년 동안 일본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아무리 배주리고 돈을 벌여 봐야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없으면 하루 아침에 강국의 개입으로 저축은 줄어 들고 내 뜻대로 수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도 믿었던 미국도 대통령을 자주 바꿔가며 자국 이익만 추구하지 동맹이라는 것도 힘의 논리에 무기력하다.

#2. 헌법도 바꾸고 핵무장까지도...

아! 이제라도 우리도 무장을 해야겠다고 아베가 나서 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헌법이라도 바꿔놓고 세계에 무장을 용인하도록 달래 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그 다음이 문제다. 트럼프와 아베의 속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대 너도 얼마간의 무장을 하도록 용인할테니 미국의 탱크, 전투기, 잠수함을 되도록 많이 사가거라 하는 시장으로 일본을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재래식 무기는 칼이고, 핵무장은 총과 대포이다. 아무리 많은 칼을 창고에 쌓아 두어도 동네 강패는 될 수 있지만 총을 차고 나서는 경찰을 이길 수 없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려면 아마 북한이 핵무장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 핵무장 하고 있는 강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이고,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은 무장 해제 되어있다. 일본이나 독일이 핵무장 하려고 들면 3차 세계대전이나 또는 버금가는 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제일 먼저 반대할 나라가 미국이다.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몇 개의 핵무기를 안고 중국에게 견제를 해 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뭐야, 한국이 완전 달라졌잖아

일본의 아베 입장에서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동안 한국을 앞세워서 미국과 중국에 수출을 해 왔었는데 한국이 달라졌다. 한국이 금융위기를 잘 넘기더니 이제 더 강해져서 GNP가 3만 달러가 넘어서서 일본에 몇 천 달러 차이로 다가섰고, 자국의 주요 기업을 능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소니가 삼성의 적수가 안 된지 오래 되었다. 현대자동차도 겹없이 성장하여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하고 나면 도요타도 쉽지 않다.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것은 남북한이 자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단시일에 해소 될 일이 아니다.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보다는 덜 한 것 같다. 더우기 남북문제를 해소하는 자리에 일본을 끼워주지도 않는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북한의 핵 사정권내에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남북한의 공동의 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앞선 죄가 있다. 남북한은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한나라가 되고 만다는 것을 일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칫 이러다가 핵무장한 한반도가 일본 열도를 노려보게 될 것 같다는 위기감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가장 큰 원인이 한국의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남한은 사실 오래 전부터 북한의 핵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설사 지금 모든 북한의 핵무기를 없앤다 해도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면 남한은 계속 핵공격위험에 노출된다.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몇 차례의 재래식 미사일 공격만으로도 핵공격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격으로 한반도 남쪽은 아마 수 백년 동안 인간이 살 수 없는 오염지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번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 북한이 적대감을 가지고 미사일을 쏘는다면 아마 동경까지도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핵무기가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 공격만으로도 그렇다.

#6. 아베의 무리수가 한국엔 깨달음을

한국 증시의 신뢰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이다. 이미 땅에 떨어졌다. 신뢰를 잃는 것은 순간이지만 회복은 세대를 넘겨야 한다. 이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올 때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Country risk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배웠을 것이다. 이 교훈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지원해야 차세대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 한국의 고질인 젊은이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새싹을 자르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재벌의 자손과 타 젊은이들이 공존 번영하는 시대로 가는 좋은 충격이 될 것이다. 전화위복인이라는 것이다.



아베는 한국 기업의 주가와 일본 납품기업의 주가를 매일 쳐다보며 후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생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변하면 이웃의 핵무기도 걱정 없지만, 내가 의심하면 날마다 무기만 쌓아도 전쟁격정에 잠을 설칠 것이다.

#4. 오히려 앞 서 나가는 한국, 안돼!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통신기기가 팔리고 있고, 데이터를 쌓아 둘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는 앞으로 수많은 정보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쉬지 않고 생산하고 있다. 재래식 반도체가 아니다. 무인자동차를 굴리고, 정교한 로봇트를 움직이고, 지금의 모든 직업을 송두리채 무너뜨릴 프로그램을 싣고 돌아갈 반도체를 밤낮없이 생산하여 세계 시장의 70%를 석권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는 향후 무인자동차에 수소연료를 채워 달리겠다고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손잡는다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예전의 젊은이가 아니다. 공작기계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재래식 인력이 아니다. 과거에는 열처리 기술이나 금형 기술, 소재 기술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였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런 구세대 기술은 일본이 아니어도 미국이나 유럽에도 많고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여 경영할 수도 있는 세대들이 뛰고 있다.

향후 30년 내에 지구상의 기존 직업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난리인데 국가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금형기술자의 일을 CAD/CAM이 빼앗듯이 선진국의 기술도 가까운 시일 내에 공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초유의 기술이 아닌 한 기존 기술은 다른 나라의 로봇에게 쉽사리 공유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술과 산업의 데이터를 한국이 한 발 앞서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보를 축적하고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청바지를 팔고 있는 삼성전자가 눈에 가시이다.

#5. 이대로 일본은 앞이 안 보여...

내가 아베라면,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 것 같다. 트럼프에게 골프치는 중에 잠깐 서서 한국에 또 한 번의 금융위기를 조성하여 대기업 몇 개만이라도 쓰러 뜨려야 할 것 같다고 귀띔할 것 같다. 남한의 돈을 빼앗아 버려야 북한과 접근도 막을 수 있고,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파괴를 위한 경제재제도 힘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 할 것 같다. 내가 아베라면 북한의 핵무기 뿐만 아니라 대포 미사일도 모조리 없애야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일본 열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한, 장거리 미사일도 핵무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제 붕괴와 북한의 폭동으로 체제 붕괴가 와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랄 것 같다. 마치 남북한이 70년 전 일본에서 해방될 때와 같은 수준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한 100조 정도의 큰 돈을 주겠다고 헛 약속하고, 한 50년 질질 끌고 다니며 매년 2조 정도의 훈돈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한국이면 말이다.



그런데, 사태는 녹록치 않다. 한국의 경제력이 IMF전의 한국이 아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흔들어도 주가는 하루도 못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섰다. 한국인들은 벌써 일본 여행을 크게 줄여 일본의 지방경제를 흔들 판이고, 삼성전자와 SK는 구매처를 대체하는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의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세계에 알리고 있다. 예전과 달리 신문기자를 동원 할 필요도 없이 이미 개인 유튜브들이 매일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해결방안도 유튜브에 떠오를 기세이다. 정책회의나 국가간 협조 프로세스도 필요 없는 시대다. 중국과 대만의 납품처는 물론이고 소련 같은 나라에서도 제안이 오고 있다. 아직 우리 공무원이 출장을 가기도 전에 해결책이 떠돌고 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뢰다. 한국 증시의 신뢰가 떨어져 금융위기가 왔으면 좋겠는데 증시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위기 탈피를 위하여 금리를 낮출 것 같은 예상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더우기 반도체 공급초과 시기에 공급물량 조정의 기대가 삼성전자와 SK의 입장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19금 토크] 리얼돌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리얼돌 판매 허용 사생활 침해 VS 여성이 거래대상?

‘리얼돌(real doll)’이라는 명칭은 모순적이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형’을 ‘진짜’라고 부른다. 겉보기에 사람과 몹시 흡사하다는 의미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인간의 피부, 체모 등을 질감까지 재현한 인형이다. 사람 체온과 비슷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 리얼돌의 가장 큰 특징은 성기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머리 없는 리얼돌은 있지만 성기 없는 인형은 리얼돌이 아니다. 주된 목적이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얼돌은 섹스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음지의 취향에 머무르던 리얼돌은 한국 사회에 여러 난제를 던진다.

지난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따라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다.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주는가? 움직임을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 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8월7일까지 진행된 서명에 26만3792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리얼돌 사건’의 전말이다.



판매업자	리얼돌을 둘러싼 갈등	여성계
“성인용품이 인간 닮은 건 당연, 사생활과 취향의 문제”	“인간 존엄성 해치고 성적 대상화 우려”	
“기술 부족해 지인 얼굴 모방은 어려워”	“3D 프린터 등 발전하면 충분히 가능”	
“아동 리얼돌은 판매 안 할 것”	“성인과 아동 구분 어려워, 리얼돌 자체가 잘못”	
“여성 위한 리얼돌도 있다”	“양적, 질적으로 남성용과 비교조차 안 돼”	

대법원은 왜 판매를 허용했나?

향소심(2심) 법원과 대법원은 왜 1심을 뒤집고 리얼돌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봤을까. 먼저 1심 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의미는 ‘음란함’을 뜻한다. 음란한 것은,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는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가슴, 성기, 항문의 모습이 사람 피부와 비슷하다. 이 남성용 자위기구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적나라하기에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맞다.”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사람을 몹시 닮은 성인기구에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물건이 ‘풍속을 해치는’ 정도로 사람과 닮지 않았다고 본다. “성기나 항문, 유두가 실제 인체

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모·혈관·근육 등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대목이다. 만약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어떤 물건의 인체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면 풍속을 해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외형이 기준이라면 “의학 수업을 위한 인형, ‘인체의 신비’를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 인형” 등도 문제가 된다. 성인기구는 용도를 배제한 채 인간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한 물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리얼돌이 “사회의 성도덕 관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고 봤다. 세관 조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종교색이 짙은 아프리카와 남아아시아 등 일부 국가들만 리얼돌 수입을 규제한다는 사실도 판결의 한 근거였다.

성인용품 반대 아냐 핵심은 성적 대상화

반대하는 쪽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이 다른 성인용품과 다르며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리얼돌은 단순한 인형, 도구가 아니라 실제 여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한다”면서 “여성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성인용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맥락을 같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리얼돌의 주된 목적은 남성

에게 여성 신체에 대해 일방적인 통제 능력을 실현하는 듯한 환상을 주는 데 있다면서 예뻐해 주는 대상인 동시에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인형의 특징은 이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여성 대상 폭력이 벌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단순히 인형, 도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도 불법 촬영, 얼굴 합성 등 지인 능욕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처벌은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리얼돌이 자유롭게 유통되면 실제 현실의 여성을 닮은 제품이 나오

는 등 악용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리얼돌은 여성을 단순히 남성의 성욕을 풀어 주는 대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다.

물론 판매업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회의적이다. 리얼돌과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성적 활동은 어디까지나 사생활이고 실제 범죄와 리얼돌 사용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주위 사람의 얼굴을 모방한 인형을 만들어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악용에 대한 문제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현행 민형사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But 생각해 볼 점!



의학기술의 발달로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체부위가 인공물로 대체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 인간-사이보그-AI에 대한 심층적인 성찰이 사회 전반에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사이보그-AI-가상현실에서 의도성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괜찮은가? 의 문제도 깊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은 항상 생체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이건 먼 미래이건 이와 유사한 가상성과 실존의 경계문제는 더욱 빈번하고 심도 깊게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기술변화에 따른 문화지체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유사사실에 대한 사회차원의 토의, 공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영국 인공지능 연구자인 데이비드 레비는 2007년 <로봇과 나누는 사랑과 섹스>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2050년쯤에는 로봇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도 흔히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특이점이 온다>로 잘 알려진 레이 커즈와일은 그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다.

충격과 역겨움의 홈페이지 방문

기자는 리얼돌 취재를 위해 검색창에 ‘리얼돌’을 입력해봤다. 관련 자료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없을 거란 예상과 달리 아무런 제한 조치 없이 리얼돌 판매 홍보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리얼돌 판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본 리얼돌 홈페이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야한 의상을 입거나 옷을 입지 않은 리얼돌이 실제 사람의 모습을 흉내 내고 있었다. 이렇게 선정적인 사이트가 어떻게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지 의문이었다.

그곳에서 리얼돌은 인형별로 이름이 각각 주어져 있었으며, 인형별로 신체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등 홍보에 열성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형의 가슴 크기, 성기의 형태, 털의 유무, 유두의 모양과 같은 자세한 부분까지 원하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었다. 순간의 놀라움을 넘어 일종의 역겨움까지 느끼게 하였다. 또한 원하는 리얼돌이 없을 시 다른 리얼돌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광고가 대놓고 있는 것도

민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리얼돌의 가격이었다. 대부분의 리얼돌은 100만원을 가볍게 넘긴다. 심지어 250만원을 호가하는 인형들도 많았다. 이 홈페이지의 측면에는 정확한 내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리얼돌을 구매한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고가인 3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리얼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홈페이지는 구매후기,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서비스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형을 자랑스럽게 인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황당한 질문과 답변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리얼돌 보관 문제로 구매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질문에 보관용 여행 가방을 무료로 구매자에게 증정한다는 답변이 달렸다. 실제 여행 가방과 똑같이 생겼으며 홍보하고 있는 가방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상상하니 끔찍한 생각이 든다.



리얼돌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놀랐고 그 판매 방식이나 홍보내용 또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을 넘어 역겨울 정도였다. 솔직히 이렇게 관련 홈페이지 취재가 간단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사람의 성을 가지고 신체부위 하나하나까지 판매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리얼돌을 과연 개인 성적 취향의 영역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취재/ 광병규(진주교2)기자]

[맏캉년맏반] 진양고등학교 1학년7반편

이곳은 교실인가. 난장판인가!! 단언컨데 가장 활발한 하이텐션 1학년 7반!

재치, 성적, 인성 3박자 모두 갖춘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반, 바로 진양고 1학년 7반! 한 명 한 명 어찌 그리 각자의 개성이 뛰어난 친구들인지 늘 놀랍기만 하다. 그러나 또 신기하게도 잘 맞춘 퍼즐처럼 모든 친구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 수업 분위기는 다소 산만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친구들만 모여 행복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남은 2학기! 앞으로도 더 잘 부탁해~



우리반 담임 박수진선생님~
우리 담임쌤! 박수진 선생님! 한 줄 이미지, 정말 착하시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정이 넘치신다. 전공이 과학인 만큼 지적인 면모가 남다르시고 수업하실 땐 카리스마 뽐뽐이시다. 단호할땐 정말 단호하지만, 항상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시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담임이시다.

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나의 한마디
강민지	손 크고 예쁜 사람, 까만 사람	@_zeroil
김동우	키 160이상, 마르지 않고, 귀여운 사람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김민중	고3	없다
김정탁	깨끗한 사람	2학기도 잘 부탁 한다
박서진	다정하고, 운동 잘 하는 사람	엄마 나 필통 나왔어~
박진향	피오 같은 성격, 몸 좋은 사람	신참 떡볶이 사줄 사람~
신해찬	착한 사람	섹시한 대현이 전번호 010 9935 7403
안병진	밤새 같이 영화 볼 수 있는 사람	넷플릭스 짱
안태준	고깃집에서 알바 하는 여자	영화 살게
양승보	끈 땀땀한 정용준 스타일이나 곽준호 스타일	<구인구직> 여친 구함 조건:35세 미만 여자 모두 가능
이대현	가지 좋아하는 여자	가지
전영서	피부가 좀 까맣고 나만 봐 주는 사람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줄 사람
정유정	남자	@yoo_z
주석주	긴 생머리	010 6665 1522
하예린	착하고 다정한 남자	이미 찾음♥
하준형	암탉	xxxxxxxxxxxxx
허수민	캐나다인	펌프 하고 싶은 사람은 짱오락실로 오쇼!
허정원	안 변하는 사람	다이어트 중

매력 넘치는 우리 친구들!



이대현:공부도 잘 하고 친절해서 반장에 딱 어울리는 친구이다. 몸에 털이 아주 많아서 발레 고슴도치를 키운다는 소문이 있다. 웃을 때 아주 귀엽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착한 친구이다.



허정원:성대모사를 아주 잘 하는 우리반 분위기 메이커다. 특히 우리 학교 수학선생님 성대모사를 아주 잘 하며 친구들을 웃게 해준다. 착하고 얼굴도 예쁘며 남자친구와 사귀지 무려 1년이 넘는 장기 커플이다.



전영서:힙합을 매우 좋아하며 랩을 엄청 잘 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친구다. 쌤얼이랑 화장한 거랑 진짜 너무 똑같은데 화장도 아주 잘 한다. 정색한 표정이 무서워서 화났냐는 오해를 자주 받는다. 특이사항은 집게 핀을 애용한다.



김정탁:딱 보면 코가 보인다. 누구나 모아이 석상을 떠올리는 친구다.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친구들이 자주 놀린다. 특유의 높낮이 없는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며 의외의 수학실력으로 놀라움을 준다.



김민중: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반 대표 얼짱이다.^^ 적재적소의 드림을 아주 잘 치고 성격이 너무 좋아서 친구가 아주 많다.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가끔 보이는 뺨치가 아주 매력적이다.



정유정:예쁘고 공부도 잘한다. 거기다 웃는 것까지 사랑스러운 친구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반전에서 성대모사를 아주 잘해서 친구들의 수업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해준다.



하예린:쉽게 잊혀지지 않을 특유의 말투와 행동이 아주 재미있고 귀엽다. 우리반에서 유일한 댄스부로 끼가 넘치고 남친도 있다. 성격이 아주 좋아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친하다.



하준형:잘 생긴 물고기, 닭, 자이언티 등 닭은 꼴이 아주 많은 친구다. 직접 보면 모두가 인정한다. 아주 말라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공부를 아주 잘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신해찬:귀여운 푸우~ 꿈을 달았다. 착하고 재미있어 반 친구들 모두가 이 친구를 귀여워한다. 특히 누구나 확인할 순 없지만 말랑말랑하다고 소문난 뺨치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한다.



안태준:투머치토케! 우리반에서 가장 말이 많은 친구 중 한명이다.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수업시간에 발산되는 개인기가 너무 재미있고 끼가 많다.



양승보:항상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친구다. 항상 등교시간 3분 뒤에 등장해서 가장 많이 지각비를 낸다.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친하고 말을 잘 건다. 같이 있을 땐 가끔 시끄럽다.^^



박진향:귀여운 외모를 가진 친구다. 목소리의 높낮이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지 그냥 말하는 건지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다. 우리 지역의 맛 집을 잘 알고 있다. 수업시간엔 자는 모습이 익숙하다.^^



허수민:짱 오락실을 지나가다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우리반 펌프 여신. 수업시간엔 거의 꿀잠 상태. 착하고 예쁜 미모를 자랑한다. 특히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진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강민지:키가 작아서 보기만 해도 귀여움이 폭발하는 친구다. 하이톤인 목소리가 또한 매력적이다.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항상 웃고 다닌다. 일상이 거의 먹방수준이다. 매일 가방에서 음식이 쏟아져 나온다.



김동우:수업시간에 잠자는 능력이 탁월한 친구다. 친구들에게 인사를 잘 건내며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다. 특별한 악기, 오보에를 아주 잘 불고 합창부인 만큼 노래도 잘 하는 재능이 많은 친구다.



안병진:예술적 감각이 탁월하다. 키가 가장 크고, 맨심머신으로 꿈이 댄서다. 춤을 보여달라고 하면 팔 웨이브를 선사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친구. 합창부이며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노래를 자주 부른다.



주석주:아마 우리반에서 손이 가장 큰 친구일 것이다. 왼손 팔씨름을 잘하고 과묵한 매력이 있다. 가끔 친구들과 놀러나 체육시간이면 이 친구의 끼를 유감없이 볼 수 있다.



박서진:우리 반 부반장이며 필통기자다. 수업시간 중 체육시간을 가장 좋아하고 활발하며, 잠이 많다. 합창부라 그런지 노래 부르는걸 아주 좋아해서 점심시간이면 복도에서 노래를 자주 불러 낸다.

맏캉년맏반 신청바랍니다.

카톡ID : feeltong1318
이메일 : feeltong1318@daum.net
①신청인, ②신청학교, ③신청반,
④연락처, ⑤신청이유,
⑥구성내용을 보내주세요.

[동아리 탐방] 명신고 댄스동아리, 딜레당트

단연컨대 남고 최강 댄스 동아리 그 이름이 자부심이 된다! 딜레당트



〈동아리 부장 신현우 학생〉

딜레당트란 비전문적 사람들이 전문적 예술 행위를 하는 애호가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명신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딜레당트들이 모인 댄스부가 있다. 비록 학생들이지만 그 실력만큼은 전문가 못지않은 단연컨대 최강 댄스부 딜레당트를 소개한다.

Q. 본인 소개와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명신고등학교 댄스동아리 딜레당트 부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동아리 활동하는 부원은 10명으로 인원은 적은 편이지만 열정만큼은 다른 동아리에 뒤처지지 않는 아주 열정적인 동아리입니다. 또 저희는 진주에 몇 없는 남자 댄스동아리 중 가장 활동적인 동아리구요. 가장 많이 알아봐 주시는 남자 댄스동아리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Q. 동아리 이름 '딜레당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A. 딜레당트는 '예술을 애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저희 동아리의 느낌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매우 좋은 이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 이쁘지 않나요?

Q. 딜레당트만의 특별한 점, 인기 있는 동아리 부원이 있다면?

A. 일단 저희 동아리만의 특별한 점은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죠. 선배와 후배 사이의 어색함도 없고 연습도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자기 역할만 다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딜레당트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친구 경훈이와 들어올 때부터 춤 잘 추기로 이름 난 친구 재화처럼 동아리 부원들 하나하나가 모두 자랑할 만한 친구들이예요! 멋진 부원들이죠.

Q. 주로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며 어떠한 활동들을 하나요?

A. 저희는 댄스나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 보다는 그냥 춤을 좋아하고 무대에 서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학창시절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편이죠.

Q. 댄스 동아리라면 예체능인데 학업에 지장이 가지는 않나요?

A. 모든 건 본인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연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연습시간을 잡을 때 동아리 부원들 개개인의 시간을 고려해서 잡습니다. 시험 2주전부터는 점심시간 이외의 연습이 없



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일을 다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Q. 딜레당트는 외모보고 뽑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외모도 중요하긴 하죠. 잘생기면 좋긴 해요. 하지만 얼굴이 잘생긴 친구보다는 연습 잘 나오고 열심히 하려는 친구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동아리 실력도 높고 분위기도 좋아지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동아리에 열심히 임할 수 있는 친구 좋습니다. 무대에선 외모보다 실력이니까요.

Q. 앞으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A. 3학년 선배님들은 입시 준비 때문에 같이 무대를 설 기회가 없거든요. 저희 학교 축제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같이 모여서 무대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딜레당트만의 계획이 있다면?

A. 거창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남은 공연들을 준비하고 싶어요. 지금처럼만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어떤 무대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Q. 딜레당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 한마디!

A. 댄스동아리라고 해서 경험이 있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동아리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춤에 대해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다 뽑아주니까 편하게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A.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아리 부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장인데도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해보자! 딜레당크 화이팅!'

[취재/ 김민수(경남예고2)기자]



〈2학년 화경훈 부원〉



〈1학년 전재화 부원〉



[필통 상식] 이걸 알자!

글을 쓰다가 맞춤법이 헛갈린다면?

어문 규범과 관련하여 최근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조사가 있었다. 여러 항목 중 '가장 많이 헛갈리는 맞춤법?'이라는 물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띄어쓰기'를 꼽았다. '되'와 '돼'의 구분, 부사의 끝맺음에서 '-이'와 '-히'의 구분이 뒤를 이었다.

헛갈리는 맞춤법 표현 알아보기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아래의 간단한 규칙들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를 참고하면 된다.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그리고 여러 개의 조사 붙여 길어지더라도 모두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꽃이 - 거기도 - 여기에서부터 - 작년에까지만
- 의존 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아는 것이 힘이다. - 열 개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불이 꺼져 간다.(원칙) - 불이 꺼져간다.(허용)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홍길동 - 채영신 씨 - 최치원 선생 - 충무공 이순신 장군

〈'되'와 '돼'〉

'되-'는 '되다'의 어간이다. '되-' 뒤에 어미 '-어'가 붙어 줄어든다면 '돼-'로 적는다. '되-' 뒤에 '-어', '-었-'과 어울려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되-'로 적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글 맞춤법 제35항을 참고하면 된다.

- 선생님, 저 집에 가도 되나요?
- 그렇게 하면 안 돼('되어'의 축약형).
- 저녁이 거의 완성됐(되었)으니 어서 집에 오렴.

〈'-이'와 '-히'〉

부사의 끝맺음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글 맞춤법 제51항을 참고하면 된다.

- '이'로만 소리 나는 것 - '-이'로 적음.
- 깨끗이 - 반듯이 - 가까이 - 많이 - 우뚝이
- '히'로만 소리 나는 것 - '-히'로 적음.
- 극히 - 급히 - 딱히 - 엄격히 - 정확히
- '이'로도 소리 나고, '히'로도 소리 나는 것 - '-히'로 적음.
- 솔직히 - 가만히 - 간편히 - 각별히 - 소홀히

가장 많이 헛갈리는 맞춤법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헛갈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궁금증을 해소하는지 묻는 조사에서는 종합 정보 사이트(포털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국어사전을 이용해 확인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찾는 일이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문 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온라인 가나다로 직접 물어볼 수 있다. [필통편집국]

[맏칸년맏반-신청] 진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6반편

큐티섹시뽀짝발랄 엘레강스 6반은 지지 않아!!

우리반 칠판에는 적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체육대회 종합우승, 교내봉구대회 최
종1등, 담임선생님 연애, 담임선생님 과목 1등,, 이제 남은 것은 합창 1등과 세리샘 결혼 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급 혼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스와힐리어: Hakuna matata)는 말 그대로 옮기면 "문제 없다"라는 뜻이다. 이 표현은 라이온킹 애니메이션에도 사용되었으며 한국어로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로도 더빙되어 있다. 하지만 스와힐리어를 쓰는 현지인들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스와힐리어로 Hakuna는 "없다." Matata는 "문제"라는 뜻이다.



우리 담임 손세리 선생님 친구 같은 진주여고 단연 최고 울트라 캡송 짱 선생님. 2019 진여 최고의 트렌드세터이자 패셔니스타, 딱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해주신다. 연애상담도 가능하다. 야구광팬이지만 응원하는 롯데 자이언츠가 가을야구를 못하게 되어 슬퍼하고 계신다. 축하를 불러주겠다는 학생들이 10년째 줄 서있다. 하지만 축하는 우리 6반이!! 셀쌤이 있기에 6반이 있다!

나의 이상형&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가서연	우도환	막창 나랑 먹자
강혜미	무쌍에 목소리 좋은 남자	♥
김가연	175 이상 무쌍에 손 크고 나만 바라봐 주는 사람	공차 먹으러 가자
김미정	옷 핏 좋은 키 큰 사람	영화 보러 갈사람
김민경	대형견 같은 사람	같이 갬 할 사람
김수지	잘 웃고 손 큰 매너 남	나랑 같이 통학 할 사람
김수현	174cm 강아지 상	공부 좀 하자
김영경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남은 2019 잘 보내기
김주현	착한데 시크하고 잘생긴 남자^^	내 건 아니지만.. ㅎㅎ @lee_flower3
김지윤	키 크고 어깨 넓고 다정한 남자	연락해라
김지현	귀여운 남자	웃자
김현정	나보다 키 큰 사람	186이면 더 좋고
김현진	웃는 게 이쁜 키 175	서울에서보자 진주people
남예은	땡땡이상	올해 안에 허벅지살 뿔대우기
문서영	예의바른 양아치	가자 서_영앤리치
박다혜	방탈출 같이 가줄 남자	막창 먹으러가자
서윤주	비율 좋고 다정한 사람	햄튜브 구독
신혜빈	한승우	행복하게 살자
이가영	목소리 좋은 남자	열심히 살자
이서진	푸드 파이터	잘살자
이혜인	웃을 때 보이는 치아가 예쁜 남자	영화 볼 땐 당근 1인 1나쵸지
정다현	운동 잘 하는 사람	놀러 가자
정희현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
황준희	나 좋아해주는 사람	카페 갈사람

우리반 매력 원탑!



김현진:우리 반에서 제일 많이 웃는 친구다. 집중할 땐 입술이 모기입술처럼 나오는 게 특징이다. 반 모두가 인정하는 열정쟁이답게 하루도 공부 안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아무도 몰랐지만 의외의 플루트 실력자. 학교에서는 안경잡이지만 꾸미면 좀 볼 만하다. 여름에도 매일 시계를 차고 다녀서 그 부분만 하얏다. @hyeonjin1542.



김민경:우리 반 모지리 민경. 친구들에게 장난을 자주 당하고 먼저 걸기도하며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는 재미있는 친구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배구를 좋아하고, 오버워치도 좋아한다. 흥이 많아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한다. 트트해 보여도 은근히 약골.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반 동물 척척박사. @mingyeong0304



정다현:우리 반 대표 쪼꼬미. 생긴 것부터 목소리까지 너무 귀엽다. 소심하지만 친해지면 말을 잘 걸고 장난도 잘 친다. 얼굴이 굉장히 작는데 최근 단발을 하고 나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고 모든 친구들에게 친절하다. 웹드라마를 좋아한다. @dahyeon9778



김가연:겉보기에는 시크하고 차가워 보이며 자기주장도 강해서 세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쾌하고 속은 여리다. 답답한 상황에서 사이다같이 행동을 해서 보는 이의 속이 뚫린다. 운동도 잘해서 체육대회에서 제주 대표, 겨울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셀카를 찍기만 하면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는 말을 듣는다. @rkds1129 연락바람



이혜인:뽕알뽕알 대왕이자 분위기 메이커. 초딩 같은 얼굴이지만 의외로 키가 커서 일어서면 다들 깜짝 놀란다. 대화를 해보면 시그럽지만 한 게 아니라 생각이 깊고, 친구들 얘기를 잘 들어준다. 잘 빠지지만 잘 풀리는 편. 피글렛, 막창을 좋아하지만 불막창은 싫어먹는 6반 맏짱이 원탑. 참고 바람. @acorn_ 연락 환영 친한 척 환영



김주현:우리 반에서 꽃을 담당하고 있다. 눈이 굉장히 큰데 사진에선 예쁜 눈이 반의 반도 담기지 않아 안타깝다. 누구나 볼록한 이마와 큰 눈을 부러워 한다. 미술 하는 여자이고 흥이 많다. @bbjuhyun



김수지:우리 반 비주얼 부반장. 잡티 없는 하얀 피부에 웃을 때 당나귀를 연상시키는 치아가 매력 포인트다. 우리 반에서 다리 길이 최장... 무슨 웃을 입어도 잘 소화한다. 엄마같이 친구들을 잘 챙겨주며 어른들에게도 씩씩하고 예의 바른 아주 착한 친구다. 사천에서 통학하는 부지런한 프로 통학러이다. @rwl_1 맛팔하자



김미정:우리 반 대표 기요미 뺨뺨이다. 동글한 얼굴과 볼 살 때문에 웬만해선 귀여운 병아리 캐릭터들과 다 닮았다. 쳐다보면 항상 웃고 있고 늘 하이텐션이다.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운동 잘한다. 반 친구들에게 먼저 장난 치고 다가가는 편이며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mj_00315 디엠 고우



강혜미:우리 반 대표 잠탱이다. 1교시부터 잠드는 게 취미다. 하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멀쩡해지는 신공을 발휘. 또한 강혜미 앞에서 지각을 논하지 말라는 게 학계의 정설. 놀릴 때 반응도 재밌고, 발랄한 성격. 친구들 말에 가장 크게 웃고 리액션이 커서 무슨 얘기도 해주고 싶은 친구다. 속눈썹이 길고 눈썹이 예쁘다. @ham_2_ ♥



김지윤:우리 반에서 피부가 가장 하얀 친구다. 무쌍이지만 큰 눈과 엘프 같은 뽀족한 귀를 가지고 있다. 함께 있으면 재밌고 기분 좋게 해서 항상 친구들이 넘쳐난다. 표정이 다양해서 달은꽃이 많다. 날씬하면서 군것질 안하는걸 보면 때려주고 싶다. 6반이 끝은 '애가 남자였다면 사귀고 싶은 얼굴' 1순위. @zziyeon24 디엠 해



황준희:우리 반 우기기 대미왕 겸 독순이. 독 부러지는 성격에 의외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한 번 한다면 끝을 보는 성격이며, 가끔 틱틱대며 빼죽거리는 입이 매우 귀엽다. 치즈를 싫어해 급식에 치즈가 나오면 친구들에게 나눠준다. 참 예쁘게 생겼는데 셀카 실력이 점점 퇴화하는 중이다. @zzu_ny ♥



문서영:우리 반에 없으면 안 되는 6반 최고의 완소퍼펙트 반장이다. 공부장에 예체능까지 모두 접수. 그만큼 공부욕도 많아서 시험치고 나면 문서영 울음소리밖에 안 들린다. 6반 체대 우승과 스포츠리그 우승의 주역. 귀여운 짜식. 유구르트와 공치에 퍽퍽 죽는다. 공차 원 픽은 초코 쿼ncy 스무디에 펄 두 번 추가. @_s0yy ♥



김현정:우리 반 공부 일짱 기댄 정. 큰 키와 큰 목소리로 항상 튀고, 가끔은 허당미가 넘친다. 한 때 성적 슬럼프 구구구에 빠지기도 했지만 아젠 그냥 탑 오브 탑이 되어버렸다. 특유의 해맑은 웃음과 유쾌 드립으로 우리 반 유 짱 픽 등극. 반 친구 모두 두루 친하다. 엉뚱하지만 귀여운 매력 있다. @hyunjeong_k 디랙하시오



이가영:우리 반에서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 나오지 않는 순정파다. 우유부단하지만 재밌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도 많고, 참도 많고, 애교까지 많다. 평소에는 게을러보여도 항상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며, 꾸미는 것에 관심이 넘쳐난다. @leegae-ayoung



김수현:우리 반 얼굴을 담당하는 친구이다. 눈에 힘주고 웃을 때랑 평상시에 볼 때 얼굴 분위기가 다르고 웃는 표정과 무표정의 분위기가 또 다른 것이 매력 포인트이고, 말할 때 독 부러지는 목소리와 표정이 아니운서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을 정말 잘 챙겨준다. @ssu_hyoni

[씨네통통] 공포영화 변신 롯데씨네마 현장 투표

변신! 무섭긴 무섭다는데...



전체적인 변신의 줄거리를 리뷰하자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악마가 한 가족 안에 침입하면서 벌어지는 섬뜩한 사건을 그린 스릴러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악마 영화들은 사람의 몸속에 빙의한 악마거나 흉측한 모습의 악마를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선함을 준다.

이 영화가 선투자를 받으면서 관심을 모은 이유는 그와 달리 악마가 내 주변의 누군가로 변신한다는 콘셉트에 있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가족이 어느 순간 악마라는 공포입니다.

마치 복사품처럼 복제된 사람이 공포의 주제인 것이다. 그것도 악마가 변신한... 어머니마저 나타나 망치를 휘두르자 딸은 삼촌을 부른다. 변신 예고편에서 사제복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삼촌 중수다. 결국 그들은 악마에게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실에 함께 모여 잠을 자며 사투를 시작하는데....

긍정평가는 62.6%, 배우들의 연기력은 만장일치 인정



평가	득표	비율
거의 나의 인생영화	4	1.9%
누구에게나 강력 추천	80	23.8%
그냥 볼만한 수준	124	36.9%
그저 그렇다	46	13.7%
영화 관람료 아깝다	8	2.3%
못 보게 말리고 싶다	36	10.7%
합 계	298	100.0%

직관 후기

진가희(진주중앙고)기자 평소 공포영화를 즐겨보고 좋아해서 이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눈 여겨 보고 있었다. 성동일 배우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더 기대를 했다.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는데 최근 본 공포영화 중에 가장 무서웠다. 공포영화를 잘 안 무서워하는데 처음부터 무서웠고 징그러운 장면이 많았다. 징그러운 장면을 잘 못 보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영화일 수도 있다. 분장이 매우 섬세하고 영화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모든 공포영화 특성 상 스토리 전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결말이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서 좀 찝찝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배우들 연기력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런지 관객을 몰입 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손익분기점 166만명은 가볍히 넘을 듯 하다.

관객들의 한 줄 감상평

영화를 보고 나 온 관객들이 한 줄 감상평을 남겨 주었다. 중복되거나 신문에 실기 부적합한 내용을 빼고 정리해 보았다

▷영화관 알바생입니다. 팝콘이 바닥에 많아요.
▷무서워요./ bb-선명고
▷생각보다 허무했다./ 선명 S.R
▷몰입도만 짱...? 연기만...?/ 선명 졸업생
▷너무 무서워서 1시간 후 중간에 뛰쳐나옴./ 진여고 졸 JS
▷저는 완전 대성통곡 했습니다. 제 기준에선 무서웠어요...
▷죽을 뻔 했어요./ 문산중 KSY
▷무서운 영화다. 연기 쩐다. 그런데 뒷심이 딸린다./ 초전동
▷ㄷㄷ 무섭다. 나라면 돈 쥐어짜내고 빌려서라도 이사 갔다. 무섭다./ 문산중학교 KDJ
▷퇴마 장면 아쉽다. 연기력은 인정...
▷징그러워서 토 나올 것 같아요. 우웻 괜히 봤다 b
▷지루해용!
▷결말이 싫다.



▷뭘임? 성동일 연기 하나는 잘하네!!
▷무서운데 좀 허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선명여고 1-2 박지우
▷처음엔 무서웠는데 가족들 서로 못 믿어 의심하는 게 재밌다./ 선명여고 1-2 강혜빈
▷기대만큼 무섭지 않았다. 결말도 약간 아쉬웠다.
▷팝콘 씹는 게 더 재밌다.^^.
▷재밌었는데 친구가 무섭다고 뛰쳐나옴./ 대야고 졸업 MS
▷끝 너무 찝찝./ S.M 졸업생
▷눈 계속 가립니다./ 산청고
▷계속 무섭다./ YHS
▷보지마세요...
▷연기 진짜 짱짱 재미있었다./ SJ
▷그냥 너무나 무서워요./ 선명 정승은



올해 가장 무서운 오컬트 영화 변신 Metamorphosis

▷장르 : 공포, 스릴러
▷런닝타임 : 113분
▷개봉 : 2019.8.21. 개봉
▷감독 : 김홍선
▷출연 : 배성우, 성동일, 장영남, 김혜준, 조이현, 김강훈
▷등급 : 국내 15세 관람가
▷흥행 : 개봉주 관객수 75만 5,089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

한국 역대 공포영화 흥행 베스트10



① '장화, 홍련' (2003년/ 314만 명)

16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 퇴색은커녕 오히려 높아만 가는 명성의 한국 공포영화 대표작이다. 고전 '장화홍련전'을 각색, 탁월한 영상미와 음악으로 재구성한 기획 및 김지운 감독의 연출이 돋보인다. 서울에서 오랜 요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자매를 반갑게 맞이하는 새 엄마. 하지만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새엄마와 자매의 관계가 악화할수록 자매는 환영과 악몽에 시달린다. 자매역의 임수정과 문근영, 새엄마 염정아의 연기대결이 압권. 단, 혼자 보는 건 '비추'. 볼 면에 시달릴 수 있다.

② '곤지암' (2018년/ 267만 명)

'유튜브 시대'와 함께 10여 년 동안 침체기를 겪은 한국 공포영화의 부활을 알린 작품이다. CNN 선정 '세계 7대 미스터리 장소'로 꼽힌 곤지암 정신병원을 모티브 삼아 그 현장을 찾아 나선 주인공들이 겪는 기이하면서 섬뜩한 일을 담았다. 배우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1인칭' 기법을 통해 관객이 흡사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효과를 낸다. '기담'부터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까지 공포 장르를 파고든 정범식 감독의 노하수가 집약됐다. '곤지암'의 인기 속에 부산 영도의 옛 해사고가 몸살을 앓기도 했다.

③ '폰' (2002년/ 220만 명)

하지원이 한때 왜 '호러 퀸'으로 통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잡지사 기자인 지원(하지원)은 계속되는 괴전화를 피해 번호를 바꾸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011-9998-6644'라는 번호 외에는 선택되지 않는다. 이후로도 괴전화는 계속되고, 지원은 앞서 이 번호를 쓴 한 명은 죽고 또 다른 한 명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폴더 폰' 시대의 공포영화. 아날로그 정서가 짙지만 휴대전화를 매개로 하나 둘 드러나는 사건이 자아내는 공포감은 지금 봐도 탁월하다. 안병기 감독이 연출했다.

④ '여고괴담' (1998년/ 200만 명)

공포영화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 박기형 감독 연출로, 한국 공포영화 르네상스의 시작이다. 한 여고 안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죽음, 이에 얽힌 사건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은영(이미연)은 졸업한 지 10년 만

에 모교 교사로 부임하고, 그때부터 학교에선 누군가 죽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은영은 10년 전 학교에서 죽은 친구 진주(최강희)를 떠올린다. '여고' '자살' '질투' 등 공포영화 주요 관객인 10대의 취향을 저격, 이후 시리즈가 5편까지 나왔다. 현재 김서형 주연 '여고괴담' 리부트 시리즈 '모교'가 제작되고 있다.

⑤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 (2003년/ 178만 명)

'여고괴담'이 한국 대표 공포 시리즈로 공고히 자리를 굳히게 한 두 번째 영화이자, 시리즈로는 세 번째 작품. 학교 기숙사로 오르는 숲길에 층계로 된 계단이 있다. 여우계단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29번째 계단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 저마다 간절함을 품고 소원을 비는 여고생들을 둘러싼 이야기가 흥미롭다. '여고괴담'이 신인 발굴의 산실이란 걸 다시 증명했다. 송지효, 박한별, 조안이 주연을 맡았다. 윤재연 감독이 연출했다.

⑥알 포인트

2004년/ 관객수 168만명/ 감우성 주연의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한 한국 공포영화계의 수작!

⑦ 고사:피의 중간고사

2008년/ 관객수 163만명/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공포스릴러. '시험은 시작되었다.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1명씩 죽는다.'

⑧공녀

2007년/ 관객수 135만명/ 조선시대 한궁녀의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궁녀들의 비밀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⑨검은집

2005년/ 관객수 107만명/ 일본의 호러소설 대상을 수상한 호러소설의 대가 기시 유스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황정민 주연의 싸이코패스 호러 스릴러.

⑩분홍신

2005년/ 관객수 107만명/ 안데르센의 동화 분홍신을 각색한 김혜수주연의 공포영화.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분홍신의 원혼'

[SNS 맛집 탐방]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갈비를 가다

양념갈비에 음료와 밥도 무한리필! 과연 그 맛은?

예로부터 남녀노소 불문 없이 사랑받아 온 고기, 그렇다면 요즘 가장 핫한 고깃집은 어딜까? 줄서서 기다려도 괜찮다면, 맛집 하나가 있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풍부한 식감까지 자랑하는 돼지숯불갈비를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달려가겠는가?

평거동으로 출발!



▲기자들이 방문한 명륜진사갈비 평거점 - 진주시 진양호로 66(평거동)

진주시 내에는 6개의 체인 매장이 있다. 평거점/ 금산점/ 신안점/ 주약점/ 초전점/ 혁신도시점이다. 영업 시간은 매일 12:00~23:00/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저녁 11시까지 영업을 한다. 평일에는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주말에는 없다고 한다.

MAIN 메뉴

-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공기밥, 음료 포함)
- 성인 13500원 / 8-10세 8000원 / 5-7세 6000원
- 무한리필 이용시간 : 평일 120분/주말 100분
- ※포장 불가(반려동물에게 준다고 해도 불가) ※매장 내 모든 음식은 내부에서만 식사 가능



SIDE 메뉴

- 소갈비살(150g)/ 1인분 7000원
- 냉면(물/비빔)/ 4000원
- 돼지껍데기(160g)/ 3000원(매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찜/ 2000원



진행 중인 이벤트!

- 명륜진사갈비는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다.
- 9월 10일!! 오색송편 추석 이벤트! / 2019년 9월 10일 까지
- 총 상금 1억! 살림장만 큰잔치 이벤트! / 2019년 10월 24일까지

무한리필 SELF



셀프코너의 모습이다. "남겨진 음식물은 전부 다 버려지게 됩니다. 드실 만큼만 적당히 담아주세요. 음식물을 남기시면 벌금 3000원을 받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마늘, 고추, 고추, 양파 채, 파 등 재료 하나하나가 전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 김치와 떡, 둘 다 구워 먹으면 맛있다. 셀프 코너 옆에는 음료 무료 코너가 있다. 미란다 파인애플, 오렌지, 사이다, 콜라 4종류 탄산음료 코너 바로 옆에서는 따뜻한 쌀밥을 담갈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다. 공기밥까지 무료!

그리고 어른들에겐 생맥주 500cc가 첫 잔은 1500원 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두 잔부터는 다시 4000원...

3無정책

화학보존제를 쓰지 않습니다!
식용본드를 쓰지 않습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 가게 입구에 방역 스티커가 귀엽게 붙어 있다. 가게 안에 3무정책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 화학 보존제, 식용본드, 남은 음식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삼무 정책이란다. 청결도 확실하고 인체에 해로운 것들도 쓰지 않는다고 하니 믿고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의 이미지를 주고 있었다.



다른 지점도 그렇고 이 브랜드는 무조건 매장 내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 널찍하고 깔끔하다. 테이블은 전부 입식테이블이고 4인석부터 단체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가족모임이나 직장 회식 장소로도 괜찮아 보인다.

사장님과의 잠깐 인터뷰

Q.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A. 아침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쫓 하루 종일 일하니까 피로가 누적되는 점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이 정말 많아 좋으면서도 힘든 것 같네요.(웃음)

Q. 고기를 맛있게 먹는 법이 있다면?

A. 구울 때 자주 뒤집고 너무 타지 않게 하여 고기를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Q. 고기 먹으러 올 때 주로 몇 명이 오면 좋을까요?

A. 흠.. 3명이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 무한리필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굽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만약 4~5명이 함께 오면 고기가 끊길 수 있습니다. 고기는 끊임없이 구워 먹어야 하거든요.

Q. 명륜진사갈비만이 가진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인가요?

A. 다른 무한리필 고깃집들은 생고기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숙성되어 더 맛이 깊어지는 갈비를 판매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아요.

명륜진사갈비 CM송 들어나 봤나?

명륜진사갈비는 2012년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한 (주)명진당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무한 리필 고깃집이다. 상호명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 유생들이 식사를 하던 '진사'식당에서 따왔다.

CF모델은 베리굿의 조현, 씬마이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후크송 광고가 TV,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인터넷 영상 역시 조회수 1000만회를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 "숯불돼지갈비는 명륜진사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갈비! 김대리 오부장님도 명륜진사갈비! 우리회사 회식은 명륜진사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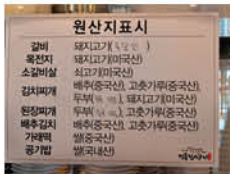
허리끈 풀고 먹어 볼까?



자리를 잡고 앉으면 딱 요렇게 나온다. 양파절임, 콘샐러드, 파절이, 김치, 쌈장, 마늘, 함께 구워먹는 떡, 상추 등 이렇게 일반찬과 숯불을 셋팅 해 준다. 기본 세팅은 종업원이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음식은 직접 가져다 먹으면 된다.



무한리필이긴 하지만 제한 시간이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 시간이 100분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평일에는 120분이다.



명륜진사갈비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원산지 표기다. 무한리필이 되는 돼지갈비는 국내산이 아니고 독일산이다!

식사중 손님의 평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온 경해여고 강00학생

"명륜진사갈비는 주말 같은 때는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어서 타 이미지를 잘 맞춰서 와야 하는 것 같아요! 적당한 가격의 무한리필이라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 가족이 양념갈비를 좋아해서 자주 외식하러 오곤 해요! 고기의 질도 괜찮고 맛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야채류랑 음료수도 무한리필이라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필통기자들이 먹어봤다

불판에 올린 갈비의 모습. 너무 오래 구우면 맛있게 먹을 수 없다는 사장님의 조언에 따라 자주 뒤집어 구웠다. 다만 연기가 많이 나고 열기 때문에 더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먹음직하게 구워진 갈비의 냄새가 사진 찍는 동안에도 군침을 돌게 만든다. 가위가 좋은 건지 고기가 쉽게 잘 잘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필통기자 솔직 후기

평거동 마늘사냥꾼 /김의석 (대아고2)기자

"고기는 양념이 고루 배어 있다. 고기를 잘 못 구워서 좀 태웠는데도 맛이 괜찮았다. 잘 굽는 사람이 구우면 그 맛도 훨씬 나올 것 같다. 고기가 다 떨어지니깐 직원 분께서 알아차리시고 바로 가져다 주셨는데 세심한 서비스도 좋았다. 불판 때문에 좀 덥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맛도 서비스도 좋았다."



평거동 고든램지 /전규원(경해여고2)기자

"고기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님에 불구하고 정말 만족스럽게 먹은 것 같다. 밥이나 음료가 무한리필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냉면을 주문하고 금방 바로 가져다 주셔서 감동스러웠다. 다만 너무 더워서 거울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연통을 직접 조절해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갈비 맛은 정말 좋았고 개인적으로 고기 굽는 재능에 눈을 뜬 것 같아 즐거운 시간이었다."

진주중앙고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시급하다

위험천만 학생들의 등굣길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학생들은 매일 아침 등교를 한다. 진주 중앙고 고등학교 근처 횡단보도. 이곳은 매일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해 건너가는 길이다. 그러나 골목길과 맞닿아 있음에도 신호등이 없어, 학생들은 늘 위험을 감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될 뿐더러, 도로교통법에도 어긋나는 일이 될 수 있다.

중앙고등학교 정문은 앞은 선학사거리와 탐마트 사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다. 기본적인 차량통행이 많은 곳임에도 3차로 밖에 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면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겹치는 아침이면 많은 차량들과 한꺼번에 몰리는 학생들로 혼잡하다. 당연히 학생들은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다. 물론 선학사거리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차량들의 운행에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많은 학생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학생들의 등교시간만 한정해서 신호등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등교 시간에는 학교 경비 아저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게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다. 경비아저씨가 아니더라도 자원 봉사자나 학교 학생들이 나서서 횡단보도를 통제 하는 것도 차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도 통제가 잘 되지 않고 더구나 멈추지 않고 마음대로 지나가는 차량들로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학교 시간에는 경비 아저씨도 안 계신다고 한다. 학교 앞 횡단보도임에도 양보하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한 없이 기다리거나 기다리다 못해 선학사거리로 돌아가길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오는 차량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법적인 문제도 있다. 이것은 중앙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 시내 몇몇 학교들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중앙고 앞 횡단보도는 하루빨리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등하교 시간만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신호등이면 충분하다. 차량운전자들이 한 두시간 힘들겠지만 자신의 아들 딸들의 안



전을 위한다는 마음이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이다.

학생들은 도로 위에서 언제나 교통 약자에 속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위험하다. 이런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도 방치하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큰 사고가 터져야 들여다보고 바로 잡기엔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가슴 아픈 안전사고들을 많이 겪었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확보되길 바란다.

[취재/ 진가희(진주중앙고2)기자]

이럴 거면 학교는 왜 가는 거야?

상식이 되어버린 학기말 수업 파행,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는 분명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그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교사들의 수업이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대부분은 시험을 위해 존재한다. 교사나 학생들이 가지는 수업에 대한 생각은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적지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모든 수업이 시험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수업이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 사실 시험이 아니라도 학교 수업은 필요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시험이 끝난 후다. 아마도 대부분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에 들어가기전 학교의 풍경. 교실에서의 수업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수업 파행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학교도, 교사도, 학생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이 끝났으니 수업이 의미가 없어진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에

는 소홀해지고 관심이 없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특성상 '시험'에 관련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수업에 질적, 양적 차이가 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인긴 하다. 하지만 수업 자체가 파행에 가깝게 방치되게 된다면 차라리 그 시간을 방학 기간에 추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물론 학교에 따라, 교사에 따라서는 수업시간을 잘 활용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의 일반적 형태를 벗어나 생기부의 특기사항 기재를 위한 추가 활동 등을 하거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규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습만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주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교사들은 자기 업무를 보는 경우가 다수 있다. 기



말고사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 또한 법에 근거한 엄연한 정규 수업 시간이다. 그 시간도 학생들에게 유익한 가르침과 교육의 시간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시험이 끝나고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과한 학습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수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평가가 보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업이 수단이 되는 학교, 주객이 전도된 교육의 현실을 당장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주어진 정규 수업시간인 만큼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한다.

[취재/ 원지현(학교밖)기자]

아, 쓰레기 어디에 버리지?

낮은 시민의식? 그러나 길거리 공공 쓰레기통은 필요하다

진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남강. 남강은 진주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 준다.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산책하는 사람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수질 좋은 물 등 진주시민들에게 남강은 소중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그런 남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진주시민들의 '핫플레이스' 다.

그런데 강변 산책로를 걷다 보면 기분이 상하기 일쑤다. 바로 쓰레기 때문이다. 여기 저기 종류도 다양하게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이 볼 수 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주치는 쓰레기는 아름다운 남강의 모습을 통째로 지운다. 대체 쓰레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이다. 남강 산책로에는 쓰레기통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진주시 남강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10개인데 그 공중화장실에서도 쓰레기를 버리기 쉽지 않다. 쓰레기통이 없으니 왜 남강 산책로에는 쓰레기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진주시 공원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낮은 시민의식' 이 쓰레기통을 없앴다는 결론이었다. 원래 남강뿐 아니라 길거리 등에 쓰레기통이 존재했으나 많은 시민들이 공공쓰레기통에 가정

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량의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쓰레기통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진주시민의 문제는 아니다. 낮은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19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 제도의 영향도 적지 않을 듯하다. 그 이후 공공 쓰레기통이 급격하게 사라졌고 누구나 한 번쯤은 쓰레기를 들고 버릴 곳을 찾아 한 참을 두리번 거린 기억을 가지게 되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억제를 위해 길거리 공공쓰레기통을 없앴더니 정작 쓰레기통 부재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가끔 길을 걷다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의 시민의식 수준에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 물론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들의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공공쓰레기통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다시 공공쓰레기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각해 보면 공공쓰레기통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시민의식 때문이라면 쓰레기통을 없앨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단순한 쓰레기통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하고 디자인도 독특한 공공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마구잡이 불법투기도 줄어들 것이다. 물론 남강의 아름다운 모습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과 환경을 위한 것이라는 시민의식도 높여가야 한다. 모두가 함께 노력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강 산책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취재/ 하강영(대아고2)기자]

[필통뮤직차트] 청소년이 좋아하는 트롯곡은?

미스트롯발 트롯열풍 청소년 최애곡 사랑의 배터리, 아모르파티!



올 해 TV조선에서 방영한 미스트롯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에게도 트로트가 주목받고 있다. '송가인이어라~' '우리 널 대로 우리 낸 공탕' 도 유행어처럼 대화에 끼일 때가 많을 정도다. 웬지 트로트와 청소년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요즘 핫한 랩만큼 흥얼거리게 되는 음악중 하나가 트로트이기도 하다.

필통이 빠질 수 없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했다. 요즘 유행어나 어른들의 선호와는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 진주고 남학생 20명, 삼현여고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 봤다.

그 결과 진주고 남학생들의 트로트 BEST3는 아모르파티, 사랑의 배터리, 초흔이었다. 반면 삼현여고 여고생들의 BEST3는 사랑의 배터리, 잘가라, 아모르파티, 산다는 건(동정) 순이었다. 남,여학생 모두 상위권에

홍진영의 노래가 눈에 띈다. TV에는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홍진영의 인기가 그대로 이어진 듯하다. 의외의 선곡은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와 윤수현의 '천태만상' 이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불리는 곡이지만 과연 이 노래의 원곡 가수를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청소년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고 또 그 시기에는 많은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트로트도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되고 더욱 다양한 음악들이 청소년들에게 들려지고 사랑받았으면 한다.

잠깐 훑~ 드는 생각. 트로트의 가사들을 듣고 있으면 직설적이고 올드한 표현이 웃음을 줄 때가 많다. 반전으로 10대 청소년들에 어울리는 가사로 트로트를 만든다면 어떨까? 트롯 같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트롯 곡, 설문조사 결과]

순위	통합	득표	진주고	삼현여고
1	사랑의 배터리(홍진영)	22	8(2)	14(1위)
2	아모르파티(김연자)	16	11(1위)	5(3)
3	산다는 건(홍진영)	8	3	5(3)
4	잘가라(홍진영)	7	1	6(2)
5	무조건(박상철)	6	4(4)	2
5	내 나이가 어때서(오승근)	6	4(4)	2
7	초흔(장윤정)	5	5(3)	0
8	어머나(장윤정)	4	0	4(5)
9	천태만상(윤수현)	3	1	2
9	곤드레만드레(박현빈)	3	3	0

트로트가 뭘까요?

트로트(Trot), 혹은 뽕짝은 대한민국의 음악 장르로, 반복적인 리듬과 엔카의 요나누키/미야코부시 음계, 그리고 남도민요의 영향을 받은 떠는 창법이 특징인 장르이다. 20세기 일제 강점기에 유입된 미국의 춤곡인 포크스트로트(Foxtrot)가 그 어원이며,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음악들이 혼합되어 탄생했다. 뽕짝은 포크스트로트(foxxtrot)의 우리 대중가요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그 리듬을 흉내 내어 이르는 말이다.

트로트라는 명칭은, 스탠더드팝이 대중화된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 양식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굳어지는데, 당시에는 스탠더드팝이라는 명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명명의 지체현상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라 보인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뽕짝'이라는 다소 비하적 명칭이 등장하여 꽤 오랫동안 공식적인 양식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했고 이 비하적 명칭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0년대 후반에 전통가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적어도 1970년대 이후에는 트로트라는 명칭이 가장 널리 쓰였다.

[취재/ 하윤지(삼현여고1)기자]



<1위는 홍진영의 사랑의배터리>



<2위는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필통 번역실] 카밀라 카베요&션 멘데스 Señorita

노래 가사가 두 스타의 열애 실사판?

필통 번역실의 이번 노래는 빌보드 HOT 100차트에서 2위를 기록한 'Señorita' 다. 먼저 제목인 'Señorita' (세뇨리따)는 스페인어로 아가씨라는 뜻이다. 친구와 연인 사이의 애매한 관계에 관한 노래인데, 상당히 선정적인 가사와 뮤직비디오에서 둘의 수위 높은 스킨십이 화제가 되었다.

카밀라 카베요는 곡 '하바나(Havana)'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쿠바 출신의 댄스 가수다. 션 멘데스는 데뷔부터 최연소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한 팝 가수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11월 합작 싱글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를 발표해 같이 활동을 하였다. 지난 6월 21일 션 멘데스와 카베요의 두번째 합작 싱글 'Señorita'를 발매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마이애미 해변에서 실제 데이트>

절친한 사이의 둘의 열애설, 당사자인 션 멘데스는 이를 부인한다. 노래 가사와 비슷한 둘의 스토리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곡 세뇨리따의 화제성을 더해줌으로써 부정할 수 없다. 밀라 카베요는 곡 하바나(Havana)로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션 멘데스는 There's Nothing Holdin' Me Back으로 빌보드 차트 6위를 달성했다. YG 연습생 '방예담'이 커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뮤직비디오와 현실이 구분 안 가는 Señorita의 가사를 읽어보자.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ñorita
날 불러주는 게 맘에 들어 세뇨리따

I wish I could pretend I didn't need ya
네가 필요 없는 척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But every touch is ooh-la-la-la
하지만 모든 손길이 ooh-la-la-la

It's true, la-la-la
진짜야 la-la-la

Ooh, I should be runnin'
Ooh, 달려가야만 해

Ooh, you keep me coming for ya
Ooh, 네가 날 계속 당기고 있어

[Shawn Mendes]

Land in Miami
마이애미 어떤 곳

The air was hot from summer rain
여름 비로 공기는 뜨겁고

Sweat drippin' off me
땀방울이 떨어졌지

Before I even knew her name, la-la-la
그녀 이름도 몰랐지만 la-la-la

It felt like ooh-la-la-la (Yeah, no)
느낄 수 있었어 la-la-la

Sapphire moonlight, we danced for hours in the sand
사파이어 달빛 모래밭에서 밤새 춤을 댔어

Tequila sunrise, her body fit right in my hands, la-la-la
테킬라와 함께 맞은 일출, 품 안에 파고드는 그녀의 몸 la-la-la

It felt like ooh-la-la-la, yeah
느낄 수 있었어 ooh-la-la-la, yeah

[Camila Cabello&Shawn Mendes]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ñorita
날 불러주는 게 맘에 들어 세뇨리따

I wish I could pretend I didn't need ya
네가 필요 없는 척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But every touch is ooh-la-la-la
하지만 모든 손길이 ooh-la-la-la

It's true, la-la-la
진짜야 la-la-la

Ooh, I should be runnin'
Ooh, 달려가야만 해

Ooh, you know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ñorita
Ooh, 알지 날 부르는 게 맘에 들어 세뇨리따

I wish it wasn't so damn hard to leave ya
날 떠나는 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을텐데

But every touch is ooh-la-la-la
하지만 너의 모든 손길이 ooh-la-la-la

It's true, la-la-la
진짜야 la-la-la

Ooh, I should be runnin'
Ooh, 달려가야만 해

Ooh, you keep me coming for ya
Ooh, 네가 날 계속 당기고 있어

[Camila Cabello]

Locked in the hotel
호텔에 틀어 박혀 있어

There's just some things that never change
절대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

You say we're just friends
우린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말하니

But friends don't know the way you taste, la-la-la
친구는 이런 느낌일 수 없어 la-la-la

I love it when you call me

'Cause you know it's been a long time coming, don't ya let me fall, ooh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걸 잘 알아, 떠나게 하지 말아

[Camila Cabello&Shawn Mendes]

Ooh, when your lips undress me
Ooh, 네 입술은 옷깃을 벗기고

Hooked on your tongue
그 혀로 날 사로잡지

Ooh, love, your kiss is deadly, don't stop
오 사랑, 치명적인 키스, 멈추지 말아

[Camila Cabello&Shawn Mendes]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ñorita
날 불러주는 게 맘에 들어 세뇨리따

I wish I could pretend I didn't need ya
네가 필요 없는 척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But every touch is ooh-la-la-la
하지만 모든 손길이 ooh-la-la-la

It's true, la-la-la
진짜야 la-la-la

Ooh, I should be runnin'
Ooh, 달려가야만 해

Ooh, you know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ñorita
Ooh, 알지 날 부르는 게 맘에 들어 세뇨리따

I wish it wasn't so damn hard to leave ya
날 떠나는 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을텐데

But every touch is ooh-la-la-la
하지만 너의 모든 손길이 ooh-la-la-la

It's true, la-la-la
진짜야 la-la-la

Ooh, I should be runnin'
Ooh, 달려가야만 해

All along I've been coming for ya (For you)
널 위해 먼 길을 달려왔어

And I hope it means something to you
네게 다른 의미로 다가설 수 있길 바라

Call my name, I'll be coming for ya (Coming for ya)
내 이름을 부르면, 네게 달려오겠어

Coming for ya (Coming for ya)
너에게 갈게

For ya
For ya (Oh, she loves it when I come)
For ya

Ooh, I should be runnin'
Ooh, 달려가야만 해

Ooh, you keep me coming for ya
Ooh, 네가 날 잡아당기고 있어



노래듣기

[취재/ 김동민(동명고2)기자]

[I'M FASHION PEOPLE] 김명주(중앙고1) & 오경민(선명여고2)

패션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 & 각자의 개성을 응원해 줘요

10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부분 교복을 제일 많이 입게 된다. 자신을 꾸미기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조금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똑같은 교복이 아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신을 패션을 코디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상의 경험이다.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주위 친구들을 찾아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어 보았다. 나름 패션리더를 자칭하는 친구들을 어떤 옷, 얼마짜리 옷을 입을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오늘 뭐 입지?



FASHION PEOPLE

필통패피! 8문 8답

- Q. 나에게 패션이란? 누구나 다 하지만 누구나 다 다른
Q. 좋아하고 애용하는 쇼핑몰이나 브랜드? 나이키 좋아해서 나이키 신발 찾아보 기 자주해요
Q. 옷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1.핏 2.디자인 3.가격
Q. 가장 아끼고 싶은 옷? juun.j, 카고팬츠
Q.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정장이나 색 감 화려한 옷
Q. 패션 롤모델? A\$AP Rocky
Q.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한 단어로 표현 한다면?
블랙
Q. 하고 싶은 말 같은 의도의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것처럼, 같은 사람이라도 걸음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션을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 하는 게 아닐까요.

김명주 (진주중앙고1)

SIDE 1. 블랙을 좋아해요, 오히려 여름엔 덥게!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옷

SIDE 2. 블랙은 그 자체가 멋짐이 있죠. 그리고 패션은 핏!



FASHION PEOPLE

필통패피! 8문 8답

- Q. 나에게 패션이란? 지금으로서 젊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Q. 좋아하고 애용하는 쇼핑몰이나 브랜드 보세옷들.
Q. 옷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가격과 디자인
Q. 가장 아끼고 자랑하고 싶은 옷? 이번에 하프나틱에서 산 청바지가 맘에 들어요!
Q.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호피무늬
Q. 패션 롤 모델 한혜진
Q.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한 단어로 표현 한다면? 개성
Q. 하고 싶은 말 각자만의 개성이니 욕하지 말아주세요.)

오경민 (선명여고2)

SIDE 1. 여름에도 초가을 느낌으로~ 패션은 개성이죠



포인트 준 건 딱히 없고 그냥 경대 갈 때 입은 데일리룩입니다.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옷

SIDE 2. 여름엔 또 여름답게! 나만의 포인트를 주자



상복암에 갔을 때 입었던 코디입니다.

그냥 올 블랙이면 밋밋할 거 같아서 치마는 단추가 포인트, 단추 색에 맞춰 목걸이를 실 버로!

[JOB을 잡아라] MBC 성우 표영재님을 만나다

목소리로 세상을 두드린다 미래에도 기대되는 성우들의 영역

각종 매체를 통해 활동하는 성우를 일컬어 우리는 흔히 '얼굴 없는 연기자'로 말한다. 이는 성우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광고 등에서 등장인물의 대사를 더빙하거나 목소리를 녹음하는 역할, 즉 목소리로 연기하는 배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 풍부한 감정을 전달하는 천의 얼굴, 성우, 그 직업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우 표영재님을 통해 매력적인 성우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성우 표영재는

1997년 투니버스 3기로 입사했다 1999년 MBC 15기로 재입사한 프리랜서 성우다. MBC에서 방송한 'CSI마이애미'에서 라이언 울프, SBS에서 방송된 '반지의 제왕' 2편과 3편에서 꽃미남 엘프 레굴라스의 목소리를 맡았다. SBS를 통해 방송된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웬트워스 밀러가 맡아 석호필이란 애칭으로 인기를 끌었던 주인공 스코필드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성우로서는 다소 특이한 경력으로 육군사관학교 51기 졸업자 및 예비역 육군 대위 출신이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성우 표영재입니다. 저는 1997년도에 투니버스에서 성우활동을 시작해 1999년도에 MBC로 옮긴 후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Q.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성우는 목소리 연기자예요 지금은 사라지

고 있는 라디오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거나 외화, 만화에서 더빙을 하고 게임, 광고 등에서 목소리로 창작 작업에 함께 하는 직업이죠.

Q. 성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원래는 직업군인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전역 후 사회에서 새로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재능, 꿈, 재미, 보람 등을 바탕으로 여러 직업을 살펴보다가 성우를 1순위로 꼽게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Q. 연기한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의 석호필이 가장 많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것을 연기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라면
도전해 보세요.

이 알아봐주시는 역할이라 의미가 있구요. 그 외에 CSI 마이애미, 애니메이션 오세암, 리그 오브 레전드 등 다수가 기억에 남습니다.

Q. 성우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A. 성우 아카데미, 학원 등을 통해 준비를 합니다. 저도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고요, 저는 합격 후 바로 연극 공부를 시작했는데 연극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성우들의 연기를 따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Q. 성우는 어떤 성격,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A. 글썄요, 답변 드리기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하며 그것을 목소리 연기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사람이라면 좋을 거 같아요, 목소리에 신뢰감이 있고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목소리를 가진다면 더욱 장점이 될 거예요.

Q. '성우를 하려면 목소리가 좋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A. 하하 이전 질문에서 언급을 해버렸네요, "목소리가 좋아야한다!" 라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내용과 감정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소리와 발음, 어투를 구사하면 좋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Q. 성우들만의 특별한 목 관리 비법 같은 게 있나요?

A. 잠을 일찍,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고 수분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섭취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상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어있다면 전망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Q. 전문적이지 않은 비 성우 더빙(개그맨, 아이돌 등)에 대해서 현직 성우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는 방송사 공채성우들로 이루어진 한국 성우협회원인데요 협회원 입장에선 반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성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성우를 꿈꾸세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며 도전하는 것은 행복할겁니다. 꼭 이루세요, 재밌는 일들이 많을 거 예요, 그리고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Q. 직업으로서 성우의 매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사랑스러움이죠, 표현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남길 수 있어요.

Q. 직업으로서 성우의 힘든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프리랜서로서의 자유 속에서 자기관리를 잘해야 해요, 감기가 참 싫습니다.

Q. 성우의 수입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수입은 개인마다 다를 거 예요,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일의 양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우리나라에서 성우의 향후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A. 오늘날 장밋빛은 아니라고 봐요, 외화나 라디오드라마가 없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술이 상상이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성우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한 예측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성우들이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출 준비가



성우가 되려면?



성우는 목소리 연기자이자 목소리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목소리 디자이너다. 라디오 드라마에서 국내 영화로, 국내 영화에서 외국 영화, 애니메이션 더빙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 연기자다. 또한 내레이션, 낭독 등 소리로 세상을 읽으며 그 시대에 맞는, 시대가 원하는 목소리로 다양한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성우 되는 법 중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개성이 넘치는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우는 목소리만 좋은 직업이 아닌 역할과 대사

에 어울리고 맞는 시대와 분위기, 연령에 따라 그에 맞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성우는 가장 핵심적으로 발음이 정확하고 억양이 좋아야하며 상황에 따라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에 순발력과 센스 또한 필요하다.

◆ 목소리만 좋다면 NO! 정확한 발음과 뛰어난 연기력 OK!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성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우는 각종 매체를 통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물의 대사를 캐릭터에 맞게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정확한 발음이 필수적이다. 또한 역할에 몰입하여 상황에 맞는 목소리 연기를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에 따라 그 활동 영역도 다양해진다.

성우 되는 법은 다양하게 열려있다. 성우 지망생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전문적으로 배워 기초부터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표현해내는 직업으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성우, 전문성우가 되는 법은 점차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듣고 꾸준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 외엔 왕도가 없다.

성우지망생을 위한 Live Tip

1. 성우 공채시험은 답문실기와 더빙시험으로 이뤄진다

각 방송사마다 원하는 성우의 특징이 있다. MBC는 연기력이 우선이고 투니버스는 더빙 기술을 중요하게 본다. 하지만, 목소리의 색깔은 크게 따지지 않는다. 배우가 장동건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방송사 공채는 답문실기(연극대본으로 즉석 연기)와, 더빙시험(영상과 입을 맞추는)을 본다.

2. 성우가 되려면 목소리를 만들지 말고 연기부터 배워라

많은 사람들이 성우는 단지 목소리배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목소리만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연기자들보다 더 몰입해야 한다. 성우가 되려면 발성이나 발음, 목소리 계발 전에 연기부터 시작해라. 연극을 하거나 TV드라마 대본을 구해 연습해야 한다.

3. 녹음기를 버려라

성우지망생들이 녹음기로 본인 목소리를 녹음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이들이 많다. 연습 때부터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자백'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 처음 연습할 때는 레코딩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취재/ 원지현(학교밖)기자]

독서 없는 생기부 독서기록?

현행 독서 기록 시스템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유도한다

독서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활동이다. 일단 독서 자체로 청소년들의 성장과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입시에 있어서도 독서는 자신의 관심사나 학습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두 번째 경우에 관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책이나 고전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학생 생활기록부에 있는 <독서활동란>에 책 제목 한 줄을 적기 위해서이다.

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란은 학년마다 학생이 읽은 책을 교과별로 분류하여 기록하는 부분이다. 현재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책 제목과 저자만을 독서기록란에 기록하고 있다.

보통의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독후감을 받은 뒤 독서 기록에 기재해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독후감을 따로 적지 않아도 책 제목과 저자만 있으면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읽지 않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거짓말로 기록하거나 심지어는 읽지도 않은 책을 올리는 사례도 생긴다.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독서의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단지 입시를 위해 필요한 스펙의 하나로 이용될 뿐인 것이다. 물론 제대로 읽지 않은 책을 기록할 경우 이후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선생님들은 말하지만, 당장의 생활기록부 관리가 급한 학생이라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독서 기록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위에서 말한 부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현행의 독서 기록 시스템은 독서라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활동을 입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독서를 통해 얻길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이를 위한 실질적인 독서 기록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근본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이전처럼 책과 그 책을 읽은 소감을 같이 기록하는 방법도 당장은 효과적일 듯하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우리나라의 독서 교육이 입시라는 특정한 목표를 위해 형식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당장 대학입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겠는가? 그런 입시를 위해 자신의 생기부를 경쟁력 있게 또는 다른 친구들보다 뒤 떨어지지 않게 채우려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다. 그러나 책읽기 마저 읽지도 않은 책을 허위로 독서기록란을 채우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 책 이름과 줄거리가 필요한 현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학생들에게 아주 나쁜 습관을 가르쳐 주고 있는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조금은 원망스럽다.

[취재/ 박병규(진주교2)기자]

보건교사가 필요한 이유? 학교니까!

학교에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예상치 못한 통증, 이 생길 수도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보건교사는 필수적인 존재다.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도 보건교사 1명을, 기술·고등기술·공민·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각종 학교에도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이 있음에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보건교사가 없으면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어떠한 통증이나 아픔 등을 느낄 시에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가 없다. 수확은 수확선생님께, 영어는 영어선생님께 가듯이 아프면 보건선생님께 달려가야 하는데 보건교사가 없으면 어떠한 진

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학생이 쓰러지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작년 9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얼굴뼈가 부러졌는데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해 5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 작년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11,835개 학교 중 무려 2325개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진주시내 중고교를 조사해 본 결과 중학교는 9개교, 고등학교는 6개교가 아예 보건교사가 근무하지 않았다. 학생수가 적은 시 외각지역 학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개양중학교, 사대부중-고, 진주외고에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이 의외였다. 더구나 축구부, 씨름등 여러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정보고가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듯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다른 과목 교사가 보건 담당교사를 겸임한다. 수업과 보건관련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교사를 대신하기엔 역부족이다.

보건실은 보건교사가 관리하며 아픈 학생 환자들을 치료하고 케어할 수 있는 장소이다.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는데 보건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텅 빈 보건실은 항상 문이 잠겨



있고 열릴 생각이 없다.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실 방문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내 안전사고는 예고된 일상과 마찬가지로, 하루 빨리 학교 보건교사 확충 및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실은 그저 학생들에게 약을 주는 곳이 아니다.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간인 만큼 좀 더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보건교사가 없는 9개 중학교와 6개 고등학교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보건교사의 근무시간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맞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그 역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교사의 부재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 될 것이다. 학교에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취재/ 김민수(경남예고2)기자]

도로위 새로운 무법자 전동킥보드?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법이다

최근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단연 '전동킥보드'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짧은 거리를 이용할 때 버스보다 편리하며 택시보다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60km 이상의 속력을 내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빠른 전동킥보드를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일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 질 확률도 커진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곳은 도로, 이면 도로 등으로 한정된다. 결국 전동킥보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만 이용해 달려야 하는데, 이 경우 전동킥보드 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상당수의 이용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이용자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한 운행으로 '킥라니(킥보드 고라니)'라고 지탄받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지만 어릴 때 타던 킥보드와 같이 생각하고 큰 고민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꼭 알아둬야 할 것 몇 가지를 정리해봤다.

첫번째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보도 주행이 불법이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1, 2종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 최근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25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



드를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한다.

세번째,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야간 주행 시에는 조명 장치를 켜고,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고예방이겠지만 하루빨리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가 시급히 마련 되었으면 한다. 우선 지금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면 사고에 대비한 방어운전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취재/ 이영광(진주기공)기자]

거스름돈, 백 원 돌려주세요!

시내버스 요금 결제시 거스름돈 지급문제 개선해야

버스는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친구들과 놀러 갈 때, 급하게 어디론가 가야 할 때,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버스일 것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현금을 내거나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할 때 누군가가 내 돈을 가로채거나 훔쳐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은 버스를 탈 때 대부분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보통은 그냥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된다. 그런데 교통카드를 새로 사거나, 부득이하게 성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단말기에 찍을 땐 “학생이요!” 라고 말하고 타야 한다. 그러나 요즘 버스기사들은 이 말을 못 들은 채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혼잡스럽기도 하고 빠르게 출발해야 하는 버스에서 그냥 성인 요금을 찍고 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은 정당하게 학생 요금을 내면 되고 버사회사는 당연히 학생에게는 학생 요금을 받아야 한다. 왜 오히려 학생들이 눈치를 살피며 성인요금을 결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탈 때도 이런 상황은 똑같이 발생한다.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왔을 때, 또는 교통카드에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학생들은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된다. 문제는 버스

기사들이 정확히 계산해 거스름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1일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진주시의 버스 요금은 현금시 어린이 650원, 학생 900원, 성인 1,300원이다. 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버스를 타면 거스름돈 100원을 거슬러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버스비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 보았다. J고 정○○학생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을 때 학생 돌이요 라고 말했는데 성인 요금으로 찍혔어요.” B고 박○○학생 “교통카드가 성인으로 되어있어서 등교하는데 학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못 들은 채 하시길래 직접 요금 입력하고 카드 찍었어요.” “현금밖에 없어서 1000원을 냈는데 기사 아저씨가 반응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또 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1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일까? 복잡하고 바쁜 시간에 거스름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버스나 버스기사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소한 문제니까 그냥 넘겨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권리고 또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얼마가 되던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받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물론 모든 버스기사들이 다 그런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버사회사



와 버스기사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도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 ‘100원 주세요’ 라고 말이다.

[취재/ 박서진(진양고1)기자]

키오스크, 무인결제 편하면 다야?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따라잡지 못하는 소수에게도 배려를...

요즘 패스트푸드점이나 영화관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무인 주문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스마트한 시대에 걸맞은 무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기계가 우리 곁에 점점 많아지는 것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풍경이 마냥 편하고 신기한 문명의 이기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의 무인 주문기들이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지만 종류도 다르고 화면의 프로그램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씩 곤란을 겪기도 한다. 더구나 이런 첨단시설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워낙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변화되는 세상에 따라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분명 ‘키오스크’라 불리는 무인 주문기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한 화면 터치 방식으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주문과 결제의 시간도 줄여서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사용방식이 불편할 수 있고 전자기기사용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 노인, 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의 작은 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인 주문기에 대해 10대 4명에게 질문을 해봤다. ‘처음에는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직원과 마주해서 직접 주문할 땐 주변이 시끄러우면 주문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주문하기 편해져서 좋았다.’ ‘평소 기계나 컴퓨터 등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편인데 처음 매장에서 주문할 때 사용법을 몰라 헤매다보니 뒷사람들의 눈치가 너무 보였다.’ ‘처음에는 되게 생소해서 어려워 보이고 이질감을 들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 직원을 마주할 필요도 없고 소통의 문제도 없어서 편했다.’ ‘자신은 빠른 주문과 결제에 편해서 좋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문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고 도와드렸던 경험도 있다.’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무인주문기가 더 발전했으면 했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활 속에서 많은 디지털 기기와 마주하는 젊은 층은 비교적 무인 주문기에 쉽게 적응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중장년층과 장애인 등 정보와 기술 발전에 취약한 사람들이 사용하기엔 분명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입장. 사업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야 소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는 자신들의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변화에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첨단기기의 편리함을 누리는 이면에 그 속도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취재/ 김선진(선명여고1)기자]

이거 때문에 변기가 막힌다고?

미용티슈(갑티슈)는 변기 막힘의 원인이니 주의 필요해..

쉬는 시간 종이 울린다. 친구와 장난도 치고 이동수업 준비도 한다. 분주한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가는 학생들도 있다. 빠듯한 쉬는 시간에 변기가 막혀 있다면? 난감할 따름이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화장실에 휴지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휴지를 변기에 버리라는 얘기다. 즉, 화장실용 휴지는 생산할 때부터 화장실 변기에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물에도 잘 풀리고 녹도록 만들어졌으니 그냥 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변기가 막히는 이유는 화장실용 휴지가 아닌 다른 이물질이 변기에 들어간 경우와 화장실용 휴지가 아닌 다른 휴지 사용했을 경우, 또는 여성용품이나 물티슈를 사용해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중 의외인 것이 있다. 바로 갑티슈다. 흔히 미용티슈라 불리는 이 휴지 때문에 변기가 막힐 수 있다. 같은 휴지인데 왜 변기가 막히냐고 물을 수 있다. 두루마리 휴지는 물에 잘 풀리도록 ‘물풀림성’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에 반해 미용티슈는 애초부터 공정 과정에서 물에 쉽게 녹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여행용 티슈도 마찬가지이다. 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와 미용티슈를 물에 불리고 저었을 때 둘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

두루마리 휴지는 물에 완전히 녹아 있는데 반해, 미용티슈는 제대로 녹지 않고 뭉쳐서 덩어리가 된다. 이로 인해 변기가 막힐 수 있고, 변



〈좌측이 두루마리 휴지, 우측이 미용티슈이다〉

기를 막지 않고 내려간다 해도 하수 처리 시설의 고장 원인이 된다고 한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할 때에는 미용용 티슈나 여행용 티슈가 아닌, 화장실용 휴지를 사용해야 한다. 화장실 휴지는 변기에 넣는 것이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 위생적인 것은 물론 오히려 경제적이기까지 하다고 한다.

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하수 처리 시설이 고장 나게 되면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되니 간단한 화장실 에티켓은 알고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취재/ 김동민(동명고2)기자]

잘 모르고 썼던 부드러운 미용티슈가 변기 막



필통 토론방] 디즈니 실사 애니메이션 흑인 '인어공주' 논란

디즈니 “흑인 인어공주? 안 될 이유 없다”



실사 영화 주인공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 캐스팅

고중에 실패한 작품엔 몰입할 수 없다 VS 인종차별주의, 외모지상주의

최근 월트디즈니사는 내년 촬영이 시작되는 영화 '인어공주'의 주인공 에리얼役に 가수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할리 베일리는 언니인 클로이 베일리와 R&B 듀오 '클로이 앤 할리'를 결성해 활동해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수다. 이번 실사 영화에 메가폰을 잡은 롬마살 감독은 할리 베일리가 에리얼역에 맞는 “정신과 열정, 젊음, 순수함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에리얼은 하얀 피부에 '진저 헤어'(Ginger Hair)라 불리는 빨간색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됐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할리 베일리의 외양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SNS에 '#NotMyAriel(내 에리얼이 아니다)'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할리 베일리 캐스팅을 반대하고 나섰다.

흑인 인어공주는 1989년작 애니메이션 속 에리얼은 물론, 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원작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움직임에 디즈니 측은 SNS를 통해 “덴마크 사람이 흑인일 수 있는 것처럼 덴마크 인어도 흑인일 수 있다”며 반박했다. 디즈니 프린세스 실사 영화의 인종 다양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디즈니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어공주는 허구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만화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다)”이라며 캐스팅에 반대한 누리꾼들을 비판했다.

월트디즈니사가 운영하는 디즈니 프린세스 프랜차이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처음 눈에 띄는 문구는 'Dream Big, Princess(큰 꿈을 꿬요, 공주님)'다. 이제껏 수많은 '덕후'와 안티를 모두 낚은 디즈니 프린세스, 이제 디즈니 프린세스가 보여주는 꿈의 모습과 색깔도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다.

피부색 문제 되지 않아... 노래 능력이 더 중요

나는 인어공주역에 흑인 배우인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 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선 이전부터 젤레이아 콜먼이 인어공주 실사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 되자 사람들은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할리 베일리가 흑인 배우라는 이유이다. 물론 원작의 덴마크인을 원하는 네티즌들은 다른 이미지에 몰입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왕자를 만나러가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팔아 다리를 얻는 내용이니만큼 나는 인어공주의 목소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디즈니 OST와도 관련해서 그 점에서는 유튜브에서도 노래영상으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인 정식으로 2015년에 가수로 데뷔한 할리 베일리가 인어공주 역할을 맡아도 이질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 된 것에 의아해 할 수도 있었지만 목소리와 노래도 한번 들어보면서 곧 인어공주를 찍게 될 할리 베일리에겐 응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노유경(삼현여고 1학년)

영화란 배우의 외모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저는 배우 할리 베일리의 캐스팅에 찬성한다. 지금껏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을 실사한 영화들 중 이미지가 거의 비슷한 영화가 많았다. 하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실사판 영화는 시대에 맞게 새롭게 얼마든지 재해석되고 또 다른 문화적 창작물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흑인 배우의 외모를 지적하며 다른 사람 비교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과 외모지상주의 속에 갇혀있는 반응들은 큰 문제다. 영화란 배우의 외모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우리 시대와 어울리는 인어공주 에리얼역을 소화해 낸다면 무슨 문제가 될까? 흑인 배우 캐스팅만을 두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다.



신소리(삼현여고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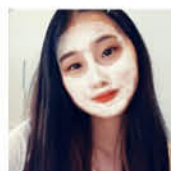
내 어릴 적 동심을 파괴당하고 싶지 않다

할리 베일리는 뉴페이스 인물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할리 베일리는 언니인 클로이 베일리와 R&B 듀오 '클로이 앤 할리'를 결성해 활동해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수로 흔히 말하는 '라이징 스타'다. 실사판 영화에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가? 흑인을 떠나 베일리는 인어공주의 이미지와 완전 다른 외모를 가졌다. 또한 흔히 말하는 초차 배우다. 2000년생으로 올해 스무 살인 할리 베일리는 지난 2006년 영화 '라스트 홀리데이'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고 다른 영화 출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연기 실력이 걱정된다. 내 어릴 적 동심을 파괴당하고 싶지 않다.

김동연(대아고 2학년)

누구나 붉은 머리 흰 피부의 인어공주를 원할 것

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 된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실사화가 된 영화는 말레피센트, 오로라, 벨, 자스민 등이 있습니다. 위 영화에 캐스팅 된 배우들은 캐릭터와 똑같지 않지만, 최소한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만족하는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어공주' 실사화 작품 역시 인어공주의 특징인 '붉은 머리의 흰 피부 그리고 푸른 눈'의 배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인어공주 에리얼 실사화'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다양성을 추구하겠다고 하며 에리얼의 상징성을 상실한 캐스팅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에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개입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손유진(삼현여고 1학년)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캐스팅이 아니라 아쉽다

인어공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빨간 머리를 가진 백인을 생각할 것이다. 만약 실사화된 영화에 이런 이미지가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온다면 영화의 몰입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물란' 예고편이 공개되며 유력비 캐스팅 논란도 재점화 됐다. '알라딘'의 큰 흥행 직후라 실사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에 더욱 그렇다.



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찰떡' 같은 캐스팅이 필요하다. 영화의 목적은 '실사화'이다. 할리 베일리가 영화의 실사화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이 갈린 부분은 '인종'과 '붉은 머리'이다.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어공주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배우가 필요하다.

김두원(대아고 2학년)

팬들이 과연 원작과 다른 애니메이션을 원할까?

나는 영화 인어공주의 흑인 캐스팅에 대해 반대한다. 지금까지의 디즈니 실사영화들은 배우를 캐스팅할 때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를 캐스팅을 해 왔다. 이는 미녀와 야수, 알라딘 등 디즈니의 실사영화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인어공주는 원작의 캐릭터와 전혀 다른 이미지의 배우를 캐스팅 하였다.



애니메이션에서 인어공주는 백인이며 붉은 색의 머리를 가진 캐릭터이다. 하지만 영화에 캐스팅 된 배우는 검은 피부에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인어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은 전세계에 정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과연 팬들이 자신들이 즐겼던 애니메이션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배우를 원하고 있을까?

김창주(대아고 2학년)

극단의 주장들은 혐오와 차별 타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문화계, 특히 할리우드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중점적으로 내세워 만들어진 콘텐츠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PC(정치적 올바름)운동적 창작 양상은 가부장적, 서구 중심적 등 기존의 보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다양성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 디즈니의 인어공주 실사화 캐스팅 논란과 같이 PC운동은 그것이 가진 큰 의미만큼 큰 문제점 또한 갖고 있다. “불쌍하고 불행한 영혼들을 위한 공개편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캐스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들 문제”와 같은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즈니는 실사영화 인어공주에서 주인공 배우의 캐스팅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조롱했다. 심지어 국내외 일부 언론사에서는 반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 '외모지상주의자' 등 프레임을 씌워 비난했다.

우선 확실하게 해두자면 캐스팅에 반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기존 원작의 캐릭터와 캐스팅 된 배우 간의 외형적 괴리감이 이유가 되기도 하며, 제대로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배우의 캐스팅을 이유로 반발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은 배제했는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일부 극단적 PC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들을 멋대로 규정하고, 차단해버렸다. PC는 혐오와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오히려 차별주의자(어디까지나 자신들이 보기 예)를 양산하는 꼴이 되어 간다.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차별주의자라고 낙인찍고,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모습은 절대 혐오와 차별의 타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흑백논리와 극단성은 필요하지 않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원지현(학교밖/ 필통기자)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를 찾아서

대한민국 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 삼성전자 계약학과로 모바일 산업 인재를 양성한다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 학회장 김민규〉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김민규라고 합니다. 대구 대륜고를 졸업했고, 현재 모바일공학과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 모바일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모바일공학과에서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UI, 보안,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등 미래 자신이 원하는 부서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그 중 코딩! C언어, 자바, Python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개발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 모바일공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우선, 저는 삼성에 대한 로망이 컸어요.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 열광한 정장을 입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또, 전자기기를 만지는 것을 좋아하고,

최신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모바일공학과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됐나요?

아버지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늘 아침마다 신문을 받아 보시는데, 학과 관련 기사를 읽으시고는 “졸업 후 삼성취직에다, 장학금까지 주고 각종 혜택이 많으니 한 번 고려해 보렴.” 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 후 검색을 직접 해보았는데 갈수록 매력적인 학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모바일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었나요?

사실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 해 수의학과 경쟁률이 너무 높아 모바일공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모바일공학과 입학 이후로는 만족도가 높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 자격증이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자격증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떤 자격증이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며 공부했던 배경 지식과 실습 능력들이 다 피와 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격증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와서 긴 방학동안 취득을 해도 되고, 남학생 경우는 군대 복무 기간도 있구요. 오히려 고등학교 시절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취미생활을 해보는 것이 학업과 병

행하는데 부담도 되지 않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C언어를 대학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하나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알고 오면 좋아요. 코딩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언어이기도 하고, C언어 하나를 배워놓으면 다른 언어를 배우기 수월하거든요!

▷ 모바일공학과에 진학하길 잘 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나요?

저는 늘 느껴요. 1학년 여름방학 때, ‘Global Language Academy’ 라고 삼성 사내에서 영어캠프를 할 때도 느꼈고, 타국 문화탐방을 위해 일본 오사카로 ‘Global Challenge’ 를 갔을 때도, 또 코딩 공부를 위해 학과에서 주최한 문경 소프트웨어 캠프를 갔을 때도 느꼈어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을 못 할 정도죠!

▷ 모바일공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하나요?

보통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쪽으로 취업을 해요. 쉽게 말하면 휴대폰 전원을 켜고 끄는 것, 삼성관련 어플리케이션 제작 같은 일을 하는 곳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물론 앞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스마트폰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답니다! 또, 보통 구미 쪽으로 가는데, 경우에 따라

수원을 가기도 합니다!

▷ 모바일공학과를 다니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힘든 점을 꼽자면 2학년 2학기 때 있는 채용시험정도랄까요? 그런데 이것도 힘든 점이 아닌 혜택인 것이 타 학과 학생들이 4학년부터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을 모바일공학과 학생들은 2년이나 앞당겨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창 놀고 싶을 때 공부해야한다는 점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 모바일공학과만의 매력은 어떤 것이 무엇인가요?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혜택이 엄청 많아요. 전 학기 장학금(학점 3.0이상), 기숙사비+식비(1일 2식) 지원(학점 3.2이상), Global Language Academy, 글로벌 챌린지(해외 견학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캠프 등의 많은 혜택이 있어요. 또한 삼성전자와 계약학사이므로 일반적인 삼성전자 입사면접보다 좀 더 간소하게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합격률도 높습니다.

▷ 모바일공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었나요?

일단 당연히 공부겠죠? 저희 학과는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하든지 간에 수능최저등급이 수학과 과탐 1과목 등급 합이 3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과학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입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도 열심히 했어요.

▷ 모바일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진로고민과 공부로 정신없고 많이 힘들실 텐데 조금 더 힘내셔서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시길 바랄게요! 고교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소프트웨어 캠프 진행 모습〉



〈삼성 사내 캠프 Global Language Academy〉



〈일본 오사카 글로벌 챌린지 행사 때〉

채용보장 계약학과, 다른 대학은 어디?

○ 연세대 이어 고려대도... 반도체 계약학과 더 생길 수도

계약학과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개설 운영하는 학과로, 특정 기업체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형과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채용조건형’으로 나뉜다. 이 중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다.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가 잇따라 개설에 나선 반도체학과 모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다. 연세대는 공과대학 내에 50명 정원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계약학과로 신설,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학과 재학생들은 졸업 후 삼성전자 취업이 보장되며, 기업으로부터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도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고려대도 SK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정원 30명의 반도체학과를 공과대학에 신설해 2021학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이 예정대로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면 현재 고2부터 진학이 가능하다. 정부의 집중 육성 전략 아래 현재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도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운영 중인 계약학과, 어디 있나요?

이번에 신설이 예고된 계약학과 외에 이미 대학에서 운영 중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있다. 성균관대가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반도체시스템공학과가 대표적이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입학생 전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소정의 채용 절차만 거치면 삼성전자로 취업도 보장

된다. 이 때문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9학년도 수시모집 당시 40명을 모집한 글로벌인재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경쟁률은 9.13대 1, 15명을 모집한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68.13대 1로 나타났다.

경북대 IT 대학의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이 있다. 역시 4년간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삼성전자 신제품 개발과정 참여와 우수학생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은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 15명, 학생부종합전형 5명 등 총 20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그 외 계약학과로는 군과 연계된 계약학과가 다수다. 다만 이들 군 연계 계약학과는 앞서 소개된 일반학과와 달리 군으로부터 군사학 등 교육과정을 대학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학과’의 성격이 보다 뚜렷하다. 서울권 대학 내에 개설된 군 연계 계약학과로는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와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과가 있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로 개설된 계약학과로 엘리트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과다. 2012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지난해에는 수시모집으로 18명을 선발했으며,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사이버 국방 유관기관에서 7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세종대는 해군과의 협약으로 해군 무기체계를 연구하는 국방시스템공학과를, 공군과의 협약으로 공군조종사 후보생을 육성하는 항공시스템공학과를 운영한다.

〔표〕 2020학년도 주요 대학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수시모집 실시 현황

*각 대학 수시모집요강 기준(19.05.02)

대학	학과	전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기준	계약기관
경동대	레저&리조트학과	교과	24	학생부100	X	대명제어산업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	논술	15	논술70+학생부30	O	삼성전자
		종합	5	1단계: (5배수)서류100 2단계: 1단계50+면접50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실기	18	1단계:(3.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60+면접20+체력검정20	X	국방부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종합	40	서류100	X	삼성전자
		논술	12	논술60+학생부40	O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교과	28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80+체력10+면접10	O	해군
	항공시스템공학과	교과	17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100+체력면접(합/불판정)	O	공군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종합	20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X	공군
영남대	항공운항계열	교과	14	1단계:(5배수)학생부100 2단계:1단계100+체력면접(합/불판정)	O	공군
	군사학과	교과	30	1단계:(4배수)학생부100 2단계:1단계70+체력10+면접20	O	육군
충남대	해양안보학전공	교과	28	1단계:(3배수)교과100 2단계: 1단계59.5+면접37.2+체력3.3	O	해군
한양대 (ERICA)	국방정보공학과	교과	20	1단계:(3배수)교과100 2단계:1단계70+면접15+체력15	O	해군

〔취재/ 장은영(진양고2)기자〕

[나의펫&우리에티켓] 보스턴 테리어 앤크, 장은령(진양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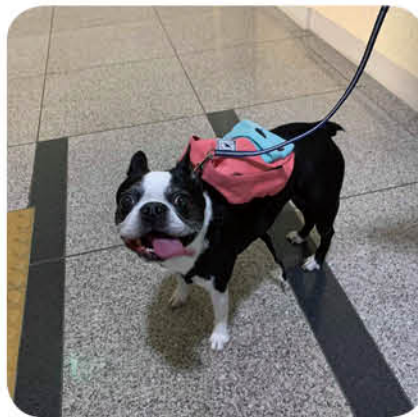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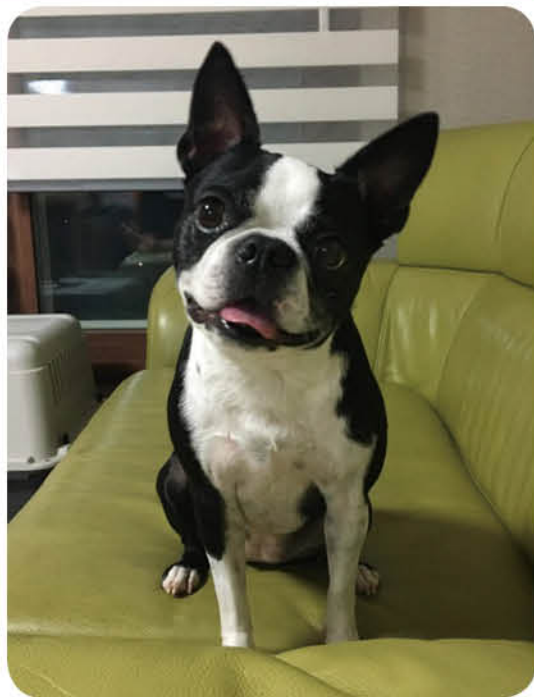
근육대장 앤크, 알고보면 애교덩어리

21세기, 현재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겐 반려동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서적 교감을 가지는 동물을 넘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진주의 청소년들도 여러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펫>은 우리 청소년들의 반려동물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아지, 고양이부터 도마뱀, 달팽이 등 모든 반려동물들과 함께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펫티켓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에티켓도 공유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뽐내봐요!



▷견주 : 장은령(진양고 2학년)
▷동물 : 멍멍이
▷종 : 보스턴 테리어
▷이름 : 앤크
▷나이 : 2015년 1월 11일 생 (5살)
▷성별 : 암컷
▷키우게 된 동기 : 평소 동물을 정말 좋아한다. 외동이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키우자고 계속 말했지만 반대하셨다. 근데 아빠도 은근 키우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매일 공부 1시간이상

씩 한다는 각서를 쓰고 허락받아서 키우게 되었다. 물론 각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ㅋㅋ
▷좋아하는 간식 : 과일, 건조된 소고기
▷앤크만의 특별한 점 :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표정,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 애교가 많다. 똑똑하다. 근육질 몸매가 멋지다.
▷앤크의 단점 :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 방구냄새가 지독하다.
▷남기는 말 : 우리 가족이 세상의 전부인 앤크야 평생 사랑해줄게~~



<산책가는 앤크의 모습. 귀여운 가방이 매력 포인트다>



<잠자는 앤크의 모습>



<꾸벅꾸벅 조는 앤크>

Tip 우리 에티켓~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것은 에티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필통과 청소년이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을 알아봅시다.~

1. 보스턴테리어는 성격이 안정하고 다정하며, 영리하고 잘 짖는다.
2.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는 약하므로, 여름에는 심한 운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3. 보스턴 테리어가 가장 잘 걸리는 질병으로 알려진 백내장, 간질, 심장판막증, 심장마비를 주의해야한다.
- 4.성격이 예민하여 애교가 많지만 질투심이 많아서 혼낼 때 주의해야 함.

[취재/ 정병훈(진양고2)기자]

[CLASS&CLASS] 선명여자고등학교 존예 2학년 5반편

담임선생님 버스타고 놀러가는 반! 완전 월드 클래스 인정!!

자기 반만의 전용 버스가 있다? 학교 스쿨버스는 들어봤지만 반 전용 버斯拉니... 진정 클래스가 느껴진다. 신비한TV서프라이즈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바로 진주 경해여고 2학년 5반이 그 주인공이다. 담임선생님 소유의 버스로 반 학생들이 단체로 여행도 가고 소풍도 갈 뿐 아니라 회식할때나 영화 볼때도 선생님의 전용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하니 그 얘기가 궁금해진다. 종례 후 '야 타' 하며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버스 이야기가 이번호 '클래스&클래스'다

Q. 선생님 어떻게 버스를 운행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버스는 원래는 제가 다니는 교회버스였어요, 그런데 2년반 전 쯤 버스 운행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교회에서 버스를 팔게 되었는데 제가 그 때 인수한 거죠. 버스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교사니까 늘 학생들과 가까이 친하고 편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함께 이동할 때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소풍도 따로 가고 애들과 마음 맞으면 언제든 놀러도 다닐 수 있잖아요, 학창시절 좋은 추억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버스를 운행한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 소풍 때 찍은 단체 사진(삼천포)



▲ 학교 종례 후 시간되는 학생들이 모여 사천으로 가서 물놀이 하러 떠 남.(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영상 선생님)



Q. 담임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황혜숙 : "5반의 담임이자자 아빠 같은신 20상 선생님(이영상 선생님)과 함께 여서 행복했어요, 저희 모두에겐 아주 특별한 2학년이 되고 있어요, 기억에 오래 남을 거 같아요,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남은 시간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쌤 ♥ 졸업하고도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합시다!!!!"



선생님과 버스 5분 5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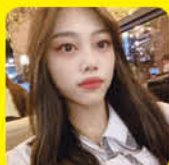
Q. 버스타고 담임선생님이랑 같이 어디를 가나요?
오경민 : "소풍으로 삼천포도 갔다 왔구요, 저희 반이 모두 버스 타고 짜장면과 짬뽕을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셔서 버스 타고 봉오동 전투를 보러 영화관에도 갔었죠, 사천 바다로 물놀이기도 갔었는데 그때는 함께 못 가 아쉬웠어요.●_●"



Q. 버스타고 함께 가면 뭐가 가장 좋나요?
한사랑 : "그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지만 선생님이랑 저희 반 뿐이니까 즉흥적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 멋진 것 같아요, 사천 바다 갈 때도 너무 좋았어요, 편하게 갈 수 있었고 물놀이하고 카누도 타고 라면도 먹고 하니깐 너무 좋았어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인 것 같아요,ㅎㅎ 선생님이랑 또 어디든 떠나는 걸 기대하게 된답니다!"



Q. 다른 반과 다른 2학년 5반만의 매력은?
장예은 : "단연 선생님의 버스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반 뿐 일걸요, 그리고 우리 반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학년 5반 최고 사랑행 ㅋㅋ"



Q. 2학년 5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양예진 : "2-5반 친구들 안녕, 나 짜니아~ 우리 반 좋아 너무 재밌어, 1학기 소풍 때 선생님 버스 타고 삼천포 갔을 때 재밌었는데 벌써 2학기가 됐네, 9월에 수학여행 갔다 오고 나서 겨울방학 때 선생님 버스 타고 다 같이 놀러 가자!! 2학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아쉬워.ㅠ ㅠ 남은 시간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사랑해~"

[취재/ 하지영(선명여고2)기자]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 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x o

안녕! 내가 누구지? 여기에 나가 나올 줄은 몰랐지? ㅋㅋ 캄캄 놀랐지??? ㅋㅋㅋ 니한테 너무 오랜만에 편지 쓰는 거 같네. 우리 엄청 친하잖아! 음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마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지? ㅋㅋㅋ

이렇게 친해 진지는 4년 조금 지났는데 이제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거 같다. 그치~

요새 공부 등으로 쪼끔 힘들어하던데 파이팅 해. 내가 공부해 하지 않지만 너 항상 응원해! 그리고 니 언제 남친 만드래? 이상한 사람만 좋아해서 상처받지 말고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ㅈㅈ 엄마의 마음 이야~

세상 사람들... 이거 보신다면 애 데려가요. 애 이쁜데 왜 안 데리고감?? 여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빨리 엄청 먹자! 피시방가자! 배고 킁 먹여줘. ㅠ 해물라면 ㅠ ㅈ 소떡소떡도... 그리고 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니네 집 곱창전골도 ㅠ ㅠ

난 시험공부 안 하지만 너 열심히 하고, 내 뜻까지 부탁해. 그리고 시험 엄청 잘 치구 시험 끝나고 부산가자. 그리고 요즘 내가 알바 하느라 바빠서 너 많이 못 놀아 준다고 서운해 하지말구^^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우리 어른 되면 더 많이 놀아야 하나? 그때까지 친구하자. 아니 평정 하자^^

그리고 사진은 같이 찍은 게 축제 때 밖에 없더라구! 이번축제도 우리가 제일 이쁘자! 그럼 20000 안녕!!!

—From. o o



To. 영찬

고등학교 댄 데 가서도 너무 자주 봐서 짜증나는 영찬아!!!!

중학교 때 되게 재밌는 일 많았었지. 그때는 공부도 잘 안했는데 지금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야자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꼭 잘 지내자.

—From. z h



To. 경해여고 일학년십반에게

안녕 십반♡ 고등학교 첫 시작이었던 우리가 같이 지낸지 벌써 절반이 넘어갔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떠올릴 수 있는 십반과의 기억들이 너무 많아.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들을 한번 해볼게.

음 일단, 힘들 때 가장 힘이 돼주었던 너희들이라 더 각별한 것 같아. 안부 물어봐주고 병뽀만 외준 너네 덕에 힘들었던 시간 잘 버텼어 고마워. 한 명 한 명 일일이 감사인사 못 전해서 미안해. 매달 다 같이 챙겨보는 신문이니까 이렇게라도 감사인사 전할게.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

반년동안 크고 작은 일들 같이 버틴다고 수고했어, 같이 버텼잖아 고마워. 우리 반 만큼 착하고 예쁜 반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벌써 이학년이 다가온다는 게, 너 회랑 떨어진다라는 게 안 믿기고 아쉬워... 이미 예쁘고 행복한 추억들이 많지만 남은 시간동안 더 예쁘고 더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자! 다들 피식거리면서 보고 있었지?? 좀 오글거리는데 말로는 못하니까 그냥 봐! ㅋㅋ 쓰는 나도 손발 안 펴져서 미칠 것 같아.ㅎ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십반 친구들아, 아프지 말고 슬피지도 말고 남은시간도 재밌게 신명나게 지내보자. 기록도 많이 남기자. 사랑해 십반♡ 남경쌤! 저희반 담임으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From. h z이가



To. 김성훈

안녕 코찌질이 성훈아.

진양고친구들끼리 남해 놀러 갔을 때 덕분에 재미있었어.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너가 충격적인행동을 했잖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 그걸 너무 많이 해도 몸에 안 좋아 성훈아...

항상 꺼안고 웃으며 날 보는 너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건 미라가 밝다는 뜻일까라고 생각해...아제부터 친구를 꺼안지 말고 인형을 꺼안아. 책을 꺼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성훈아. 그게 그렇다면 지구를 떠나라 사탄의 자식이야. 아멘..

—From. 너의 소중한 친구 정홍시



To. 내 평생 룸메들에게

안녕 편지야, 지민이, 나 니들 룸메 찬유~ 101호부터 201호, 202호까지 우리 뜻심 있게 자리를 지켜왔지.. 습치 않은 일인데 ㅎㅎ 난 니들이 진짜 편하고 좋다. 우리처럼 아무 탈 없이 룸메도 바뀌지 않고 꼭 간 방 없잖아.. ㄱㄱ 다 너희들 덕분임!!!

지금까지 같이 잘 지내주셔서 고맙다. 당연히지만 앞으로도 잘 지내야지! 앞으로도에는 졸업하고도 포

함이다임
우리 평생
술친 ㄱㄱ.
앙!!

이번 기회에 너희들에 대한 내 애정(?)을 듬뿍 표현 할라고 했는데 내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이거뿐임.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 해라. ㄱ

—From. 찬유가



To. 양만

안녕 양판아! 난 제일여고 3학년이야. 너가 그렇게 설렐뻔했던 그 사람 여자였다고 정말 좋아 날뒀던 너의 모습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 ㄱㄱㄱ 마지막에 사진보고 답장을 안하길래 정말 서운했다.

양판아, 그리고 너 오픈카카오톡 신고도 내가했어. ㄱㄱㄱ 목 하길래 목설로 신고했어. ㄱㄱㄱ 그때도 여자 같은 사람이 연락 왔는데 누가 신고했다고 했잖아... 그것도 내가했어..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봐~

—From. 제일여고3학년

To. 예정♡

예정 하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붙어 다녔는데... ㅠ ㅠ 다른 반이기도 하고 서로 이란저런 사정 때문에 요즘은 조금 소홀해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내가 5반 자주 찾아갈게. ㅈㅈ 5반 애들 모두 사랑해♡ 중! 때부터 친구였는데 아무리 다른 애들끼리 트러블이 생겨도 우리 안 싸웠던 거 같아. ㅈㅈ 나한테 너가 그만큼 잘 맞고 소중한 친구야♡

예정이는 그동안 남
자친구가 생기고
나도 생각보다 이
런저런 일이 많았
던 거 같애... 그레
도 서로 더 챙기고
놀러도 가자. ㅈㅈ
알려줘! 자기 더 할 말은 많은
데 만나서 해!!! 잘 사랑해- 예정아♡

—From. 공주



To. 호피♡

안녕 이쁜이 호피.. 너네랑 볼 거 안볼 거 다 봐서 조금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한번 써 볼게. ㄱㄱㄱ 우리 초등학교도 다 같이 나오고 사는 곳도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다 만나고... 진짜 소름 돋게 만날 만났다. 만날 애들 생일파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중학교 때 많이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는... 다 떨어지고... 특히 내가 더 떨어지고!!!! ㅠ ㅠ 너무 슬피지만 벌써 2019년도 반 남게 지나가서, 시간 참 빠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우리들도 늙고 있는 게 느껴진다.

우리 어른 되면 꼭 같이 멀리도 놀러가고 맛있는 거

도 많이 먹고 이쁜 추억 만들자. 우리 전부다 성공해서 꽃길만 걷자. 호피 사랑.해♡

—From. 호피



To. 은서,지혜,수잔,은령,다빈,소은이에게!!

애들아 안녕! 내가 너네한테 편지 쓰는 거 처음인 것 같지 않니? 그래서 그런가 뭔가 쑥스럽다! ㄱㄱ 우리 얼마 전에 하동에 놀러 간 거 기억하니? 그

때 완전 재밌고 좋았는데 ㅠ ㅠ 물론 수잔이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ㅠ ㅠ 그래도 다시 만날 날 짜를 잡았으니 올해가기 전에 다 같이 만날 수 있겠지!!!! 우리 학교도 거의 다 달라서 교복입고 사진 찍기로 했는데 그것도 해야지!!

우리 중학교 때 너무너무 좋은 기억들이 넘 많아서 평생 잊지 못할 듯!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 남기게 더 많이 만나자!! 알겠지!!
이거는 당연히 알 꺼라고 믿고 읽으면서 한번 외쳐줘! ㄱㄱㄱ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공을 위하여! 아우성!!

—From. 소진이가!!



